

고구려의 첫 출발부터 성장 그리고 소멸까지의 전 역사를 살펴본다

## 고구려를 찾아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 일러두기

1.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펴낸 『고구려 문명기행』, 『高句麗城 사진자료집-遼寧省·吉林省東部』를 저본으로 삼아, 내용을 덜어내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만든 것이다.
2. 편집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소개할 지역은 고구려 당시의 역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삼아 집안과 환인 단동과 심양 그리고 요동 지역을 골랐다. 도읍이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환인과 집안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양과 단동 그리고 요동 지역도 고구려의 역사가 이 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비중에 따라 서술의 순서도 매겼다
  - ② 각 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사진 자료들을 배치하였다.
  - ③ 수록된 모든 명칭은 고구려인들이 사용한 명칭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오녀산성은 당시의 명칭으로 본다면 흘승골성으로 기재해야 하나, 오녀산 박물관과의 혼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오녀산성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바꾸지 않았다 또한 산성 명칭의 경우 중국에서는 봉황산산성처럼 산과 산성을 연칭하는데, 우리 식으로 봉황산성으로 표기하였다.
  - ④ 사진은 대개 현지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로 가장 최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편자의 주관 아래 사진작가 차正太와 金賢洙가 촬영한 것이다. 다만 일부 유적과 성의 사진은 몇 년 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촬영이 곤란했던 까닭에 외부 기관과 개인 연구자의 소장사진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3.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성제 연구위원이 담당하였다.

#### \* 사진제공

귀한 사진을 제공하여 준 데 감사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환도산성 파노라마 · 장군총 파노라마 · 장군총 측면 · 참수도와 전투도(미조묘) · 무덤 주인공과 두 부인(각저총) · 삼족오와 북두칠성, 신선(무용총)

서울대학교 박물관-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건안성 · 낭랑산성 · 안시성 · 비사성

양시은(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 당포성

고구려의 첫 출발부터 성장, 그리고 스러져갔던 전 역사를 살펴본다

# 고구려를 찾아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답사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탐구의 여행이자 책에서 배운 지식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답사 여행은 글자와 그림으로 이해되던 역사를 살아 숨 쉬는 것으로 바꾸어 주며, 눈과 마음으로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현장의 역사적 유래와 유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나치게 전문적이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짚어주는 안내서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보람 있는 답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배낭 주머니 한쪽에 찢려 넣고 다니다가 무시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내서를 만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실이 이 책자입니다.

중국에서 동북 지방, 우리에게만 만주라는 말이 익숙한 그곳은 고구려가 나라를 세우고 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지역입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뒤에는 중국 왕조 및 초원 시대의 유목 세력에 맞서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곳은 고구려의 첫 출발부터 성장, 그리고 스러져갔던 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답사지입니다. 멀리 이국땅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고구려를 눈과 마음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만주 지역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환인과 집안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첫 도읍지 환인에는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던 초기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도읍을 두었던 400여 년의 역사, 발전과 위기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거쳐 고구려는 고구려답게 됩니다. 그래서 환인과 집안에서 만나게 되는 유적들은 그저 둘러만 보기에라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것입니다.

이 책에는 환인과 집안에서 꼭 둘러보아야 할 주요 유적들을 뽑아놓았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기록에 전해지고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소박하게나마 해석을 달아두었습니다. 하나의 유적이라도 본래의 역사상에 다가선 감상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만주 땅에 환인과 집안만이 아니라 고구려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환인과 집안을 향하는 노정의 길목 어딘가에는 고구려인이 쌓아올린 성곽이 남아 있거나 그들이 묻힌 무덤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중국의 동북 지방을 대표하는 심양과 단둥이라는 대도시도 고구려의 역사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요동 반도에는 많은 고구려 산성들이 돌보는 이 없는 오랜 세월을 견디고 의연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 성곽을 둘러보면서,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방대한 영역을 지배하였음을 가슴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따로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렵사리 나선 여행의 시간 시간이 고구려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장사진을 흔쾌히 제공하여 주신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성제 박사와 좋은 사진을 찍어 우리 재단이 값지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박정태, 김현수 사진작가 그리고 책자를 꾸미느라 애써 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26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제부

## 고구려로 떠나는 첫 여행

### 환인

1 답사하기 전에 ... 16

환인 한눈에 보기 | 환인 돌보기 | 지도와 답사 코스

2 답사 떠나기 - 고구려 첫 도읍지로의 여행 ... 20

오녀산성 ... 20

tip • 고구려 라는 이름의 유래 ... 27

tip • 동명성왕 주몽에 얽힌 신화 ... 28

환인호를 바라보며 ... 30

오녀산박물관 ... 32

상고성자 무덤떼 ... 34

tip • 고구려 무덤의 변화 과정 - 돌무지무덤에서 흙무덤까지 ... 36

하고성자 성터 ... 38

미창구 장군묘 ... 40

남도과북도 ... 43

tip • 비운의 왕 고국원왕 ... 47



1 답사하기 전에 ... 52

집안 한눈에 보기! 집안 돌보기 지도와 답사 코스

2 답사 떠나기 - 화려한 고구려 문화의 꽃을 보다 ... 56

집안 박물관 ... 56

국내성 ... 58

tip • 중국의 동북공정 ... 63

tip • 돼지가 알려준 도읍지 ... 64

환도산성 ... 65

산성하무덤떼 ... 71

tip • 고구려 도성의 구조 - 평지성과 산성 ... 72

tip • 왕을 위해 죽은 밀우와 유유 이야기 ... 73

태왕릉 ... 76

tip • 왕의 이름으로 묻히다 ... 79

광개토왕릉비 ... 80

장군총 ... 83

tip • 왕릉급 무덤의 부속시설 ... 88

우산하무덤떼 ... 89

tip •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을까? ... 91

국동대혈 ... 95

모두루총 ... 97

칠성산 무덤떼 ... 99

tip • 천연의 침략과 국내성 함락, 극적인 반전 ... 100

마선 무덤떼 ... 102

tip • 머슴에서 왕이 된 미천왕 ... 105



## 심양

### 1 답사하기 전에 ... 110

심양 한눈에 보기 심양 돋보기

### 2 답사 떠나기 - 고구려의 문을 두드리다 ... 112

요령성 박물관 ... 112

심양 시내 유적지 ... 115

tip • 소현세자의 눈물 ... 116

백암성(연주성) ... 117

본계수동 ... 122

## 단동

### 1 답사하기 전에 ... 126

단동 한눈에 보기 단동 돋보기

### 2 답사 떠나기 - 대륙과 연결되는 해로와 육로의 길목 ... 128

박작성(호산산성) ... 128

애하첨고성 ... 129

오골성(봉황산성) ... 132

tip • 입록강과 고구려 ... 133







## 고구려 천리장성

### 1 답사하기 전에 ... 140

고구려 천리장성 돋보기

### 2 답사 떠나기- 성의 나라, 고구려 ... 142

비사성 ... 142

tip • 고구려는 왜 산성을 쌓았을까? ... 146

우패산성 ... 147

tip • 고구려 성의 구조 ... 148

성산산성 ... 149

득리사산성 ... 153

tip • 고구려 산성의 유형 ... 155

간안성 ... 156

닝량산성 ... 158

안시성 ... 160

요동성 ... 161

tip • 안시성 승승장구하던 당군을 가로막고, 끝내는 물리치다 ... 162

석대자산성 ... 164

tip • 요동 지역의 고구려 성과 방어 체계 ... 165

tip •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 166

신성 ... 168

청룡산성 ... 171

최진보산성 ... 174



수도  
방어성

1 답사하기 전에 ... 178

수도 방어성 돌보기

2 답사 떠나기- 고구려의 철벽 방어선을 찾아 ... 180

니통산성 ... 180

흑구산성 ... 181

구노성 ... 182

오룡산성 ... 184

태자성 ... 186

고검자산성 ... 188

상장랍자산성 ... 189

북구관애 ... 192

tip • 고구려는 어떻게 성을 쌓았을까? ... 194

화보 성(城), 고구려의 숨결이 어린 그곳 ... 196

색인 ... 222





제1부

고구려로 떠나는  
첫 여행

동북아역사재단

5.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 근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고구려의 발자취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호방한 기개를 그리워하며 새롭게 고구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 이국땅으로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이의 발길이 닿는 곳은 주몽이 나라를 열고 첫 번째 수도로 삼은 환인과 두 번째 수도로 400년의 역사를 이어간 집안이다.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당시의 흔적이 우리에게 고구려를 생생하게 전해 주기 때문이다.

환인이 수도였던 기간은 길지 않지만, 주몽이 고구려를 연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미가 깊고 찾아가는 이의 가슴도 벅차기 그지없다. 그곳에서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아가던 초기 고구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집안으로 넘어간다. 집안에서 우리는 고구려 문화의 진수를 만난다. 도성인 국내성과 환도성은 물론 태왕릉과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군총을 비롯한 고구려 왕들의 무덤, 저 유명한 광개토왕릉비,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고분벽화 등을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그렇게 환인과 집안의 고구려 핵심 유적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고구려가 작고 소박한 나라에서 시작해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역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유적의 답사는 책에서만 읽은 반쪽의 역사를 하나로 완성시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인 평양을 비롯한 북한 내의 유적까지 답사해 고구려를 제 모습 그대로 이해할 날을 꿈꾸며, 고구려로 떠나는 여행을 즐겁게 시작하자.



환인

고 구 려 를 찾 아 서

# 환인 桓仁

huanren

## 1. 답사하기 전에

환인 한눈에 보기 | 환인 돌보기 | 지도와 답사 코스

## 2. 답사 떠나기 - 고구려 첫 도읍지로의 여행

오녀산성 · 환인호를 바라보며 · 오녀산 박물관 · 상고성자 무덤떼 · 하고성자 성터 · 미창구 장군묘 · 남도와 북도

### 환인 한눈에 보기

**역사** 고구려의 첫 수도, 초기 고구려의 중심지

**위치** 요령성 동쪽, 길림성과의 경계 자대에 위치. 훈강 중상류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면적** 3,504km<sup>2</sup>

**인구** 31만 명

**기후** 온대 대륙성 기후. 계절풍의 영향이 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 환인 돋보기

환인은 기원전 37년경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첫 도읍지로 삼은 곳이다. 당시의 이름은 졸본이었다고 전한다. 동명성왕 주몽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유리왕이 서기 3년에 도읍을 국내성(현 집안)으로 옮겼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환인에 도읍한 기간은 길지 않다. 하지만 요동 별관을 넘나들며 700여 년을 이어간 고구려의 첫 터전이자, 압록강 중류 지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던 고구려의 중심지로서 의미가 깊다.

요령성 동부, 옛 이름이 비류수인 훈강 중하류에 위치한 환인은 계곡이 깊고 산이 많아 넓은 들이 드물다. 그러나 계곡 사이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서 지류가 모이는 곳이나 강이 굽이치는 곳에 분지를 이루

며 제법 큰 충적평원이 발달하였고, 기후도 온난하며 강수량도 풍부한 나라의 도읍지가 되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의 환인은 청동기와 초기 철기 문화가 주류를 이루며, 늦어도 기원전 1세기에는 송양왕 또는 비류국으로 상징되는 작은 국가들이 들어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주몽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집단에 의해 고구려라는 국가가 탄생하면서, 환인은 명실상부한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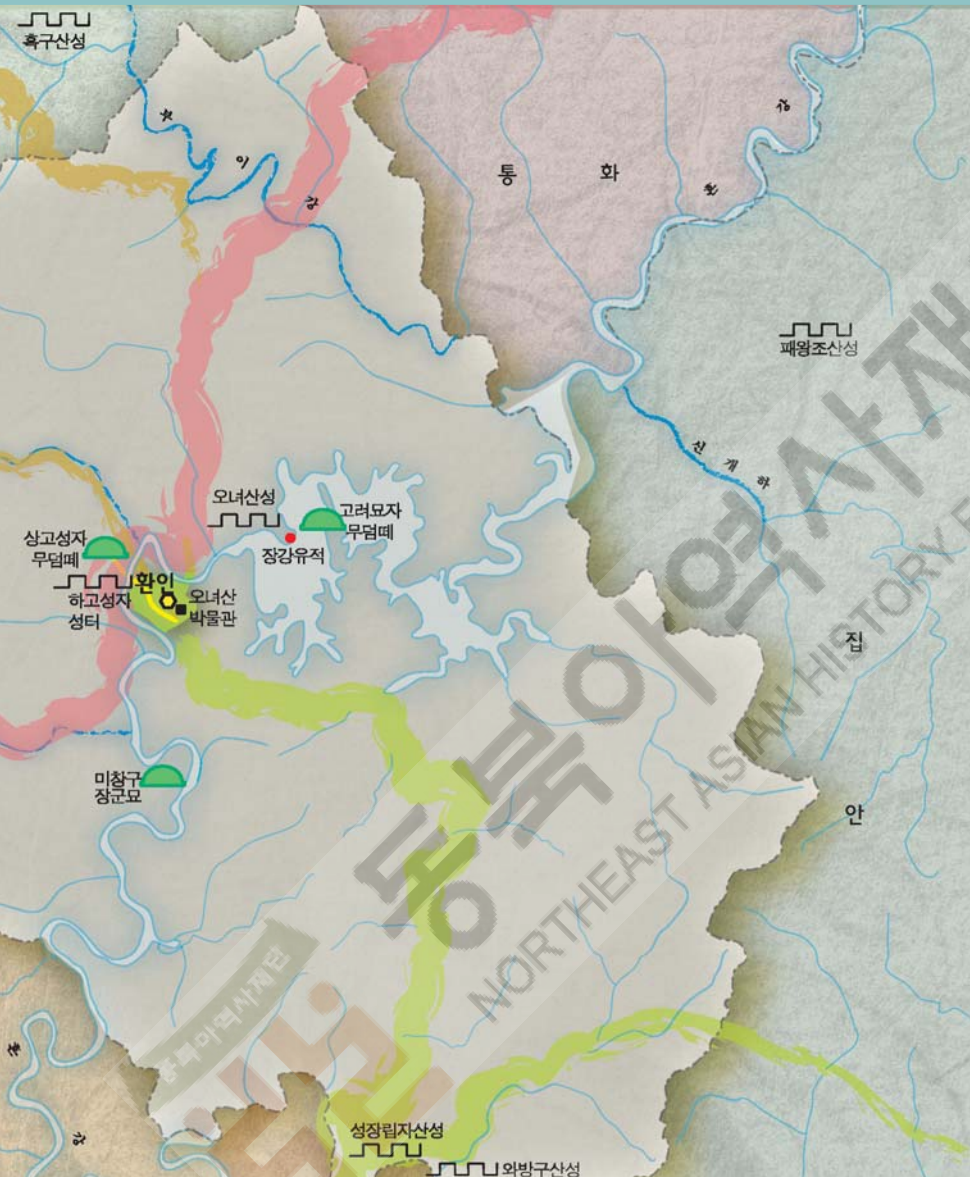
현재 환인에는 주몽이 쌓은 흘승골성이라고 생각되는 오녀산성을 비롯해서 상고성자 무덤떼와 같은 돌무지무덤군, 평지성인 하고성자 성터 등 건국 초기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훈강과 환인 시내 뒤로 오녀산이 보인다.

지도와  
답사 코스





**답사 코스**

- 오녀산성
- ▼
- 오녀산 박물관
- ▼
- 상고성자 무덤떼 (하고성자 성터)
- ▼
- 미창구 장군묘
- + 추가 코스 남도와 북도

# 고구려 첫 도읍지로의 여행

## 오녀산성

### 첫 도읍지, 첫 성

광개토왕릉비에는 다음과 같은 고구려 건국신화가 새겨져 있다.

“시조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남하해 비류곡에 도착했다. 추모왕은 거기서 홀본 서쪽 산 위에 올라 성을 쌓고 도읍을 정했다.”

제일 먼저 찾아볼 답사지는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로도 읍한 곳과 그곳에 쌓은 첫 번째 성이다. 여러 발굴 결과와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흘승골성 혹은 졸본성은 현재의 오녀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오녀산성은 요령성 환인시 동북쪽에 위치한 오녀산에 있다. 오녀산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동남쪽으로 큰 골짜기가 있고 서쪽·북쪽·동쪽은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이다. 산 정

### 오녀산성전경

요령성 환인시에서 동북쪽으로 8.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오녀산성 전경. 오녀산성은 천혜의 요새로, 고구려 시조 주몽이 처음 도읍하여 고구려를 세우고 만든 성으로 알려져 있다.



상은 보통의 산 정상과는 다르게 넓은 평탄지라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다. 오녀산성은 바로 그 오녀산의 정상에 우뚝 서 있다. 천연의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이 있는 곳은 따로 성벽을 쌓을 필요 없이 그대로 성을 이루고 있고, 경사가 완만한 동쪽과 동남쪽만 돌로 성벽을 쌓아올렸다.

### 오녀산성 오르기

오녀산성을 오르는 길에는 세 갈래가 있다. 정상부까지 한 단 한 단 밟고 올라가는 계단길인 서문 쪽과 산길을 오르는 남문 쪽과 동문 쪽 길 이 그것이다. 경사가 급해서 어느 길이나 오르기가 쉽지는 않다. 대개는 서문 쪽이나 비교적 경사가 덜한 남문 쪽 길들을 이용하는데,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등산을 하듯 오르면 오를 만하다. 2천 년 전 주몽의 발길을

#### 오녀산성 동벽

걸어보는 보이지 않지만 성벽의 기초는 크고 긴 돌을 쓰고, 그 위에 뿔기형 돌을 쌓아올렸다. 뿔기형 돌은 평면이 삼각형으로 넓은 면이 바깥을 향하고 뾰족한 면이 안을 향한다. 이 뾰족한 면은 성벽 안쪽 부분을 채우고 있는 뾰족하게 다듬어진 돌과 맞물려진다. 이로써 틈새를 매우 고 겹겹이 누르면서 성벽을 한층한층 쌓아올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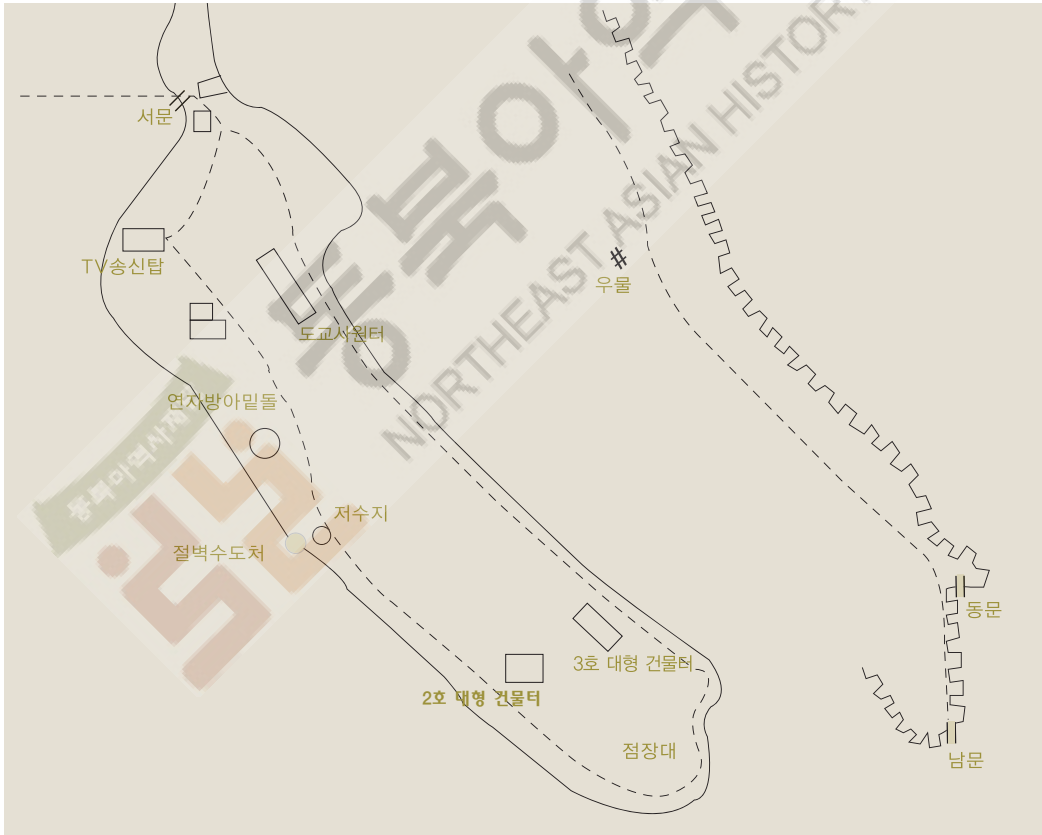


상상하며 고즈넉하게 걷는 것도 남다른 답사의 묘미다.

남문 쪽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 오녀산성 관리사무소가 있는 남문 입구에서 시작하면 된다. 거기서 차를 내려 나무로 된 산성 출입문을 들어서서 산길을 오르면, 성의 남벽에 닿는다. 남문은 남벽과 동벽이 만나는 곳에 있다.

서문 쪽 길은 계단으로 이어진 길이다. 계단이라도 경사가 급해서 오르고 나면 땀도 나고 숨도 턱에 찬다. 그래도 마지막 계단을 딛고 올라서는 순간 '고구려의 첫 도읍지'에 도착했다는 뿌듯함이 모든 노고를 말끔히 씻어준다.

오녀산성유적분포도



서문을 들어서서 좁다랗게 난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1호 대형건물터가 있다.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터는 왕궁터로 알려져 있지만, 왕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느낌을 준다. 건물터에서는 온돌 시설도 발굴되었다. 중국 당국이 복원한 온돌 시설을 살펴보면 쪽구들 형태를 하고 있어, 방 전체에 구들을 놓은 요즘 온돌과는 형태가 다르다. 하지만 구조와 기능상 현대 온돌의 원형이었음은 틀림없다. 온돌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난방 시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녀산성을 쌓고 고려를 세운 이들이 다름 아닌 한민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진다.

건물터를 지나 남쪽으로 길을 잡아 따라가면 저수지와 우물을 만난다. 천지(天池)라 불리는 저수지는 깊이가 1~2미터에 이르는 직사각형 모양이고, 그 옆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았다는 이 저수시설 덕분에 성 안의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오래 머물 때에도 병사들의 목을 충분히 충족시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다.

저수지에서 오른쪽으로는 두 번째 대형 건물터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좀 더 가면 오녀산성의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장수의 지휘소인 점장대가 있다. 여기에 오르면 성 안과 성 밖의 환인호, 그리고 그 호수에 잠긴 고려모자 무덤뚝배와 환인 시가지까지 멀리 내려다보인다. 안팎 병사들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어 비상시 전투 지휘를 하기에 알맞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대의 왼쪽 방향으로 소점장대가 하나 더 있고, 이어 서쪽으로 세 번째 대형 건물터가 있다.

## 내려가는 길

산 위, 천연의 요새에 쌓은 성은 전시에는 훌륭한 방어성이 되겠지만, 평상시의 도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듯하다. 그래서 주몽이 처음 이곳에 성을 쌓고 도읍을 했다 해도, 후에는 교통이나 여러



오녀산성 대형 건물지와 온돌 시설



#### 오녀산성 동문

남벽에서 110미터 떨어진 동벽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너비는 4미터에 이르며 성벽 양끝이 직각으로 엇갈려 만나고, 성문 옆의 북벽은 반원형을 이루면서 성문 안쪽을 감싸고 있어, 어긋문식 웅성으로 분류된다.



여건이 좋은 평지에 평지성을 만들어 오녀산성과 함께 짝으로 운영했을 것이다. 고구려 도성의 평지성-산성 체계가 첫 도읍지 환인에서부터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서문에서 오녀산성을 올랐다면, 이번에는 남쪽으로 길을 잡아 내려가 보자. 거기서 동문과 남문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진 동벽과 남벽을 만날 수도 있다. 지금은 많이 무너져 천 년이 넘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기단부 위에 공들여 다듬어 층층이 쌓아올린 성벽 돌을 쓰다듬어 보면, 나라를 세우고 희망찬 마음으로 한 층 한 층 성벽을 쌓았을 옛 고구려 선조들의 희망찬 손길이 잡힐 듯도 하다. 그래서 고구려 첫 도읍지 오녀산성 답사길은 비록 땀을 흘리고 기쁜 숨을 골라야 하는 고된 여정이지만, 고구려 유적답사의 첫 길로는 더없이 의미가 있다.

## ‘고구려’ 라는 이름의 유래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주몽에 의해 건국되었지만, 고구려란 나라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공해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고구려 지역에는 현도군을 설치했다. 거기에 소속된 현 중에 ‘고구려현’이란 이름이 보인다. 이때가 기원전 107년이나 이미 오래전부터 고구려라는 세력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구려(句麗)’는 ‘구루(溝婁)’와 통하는 말인데, 구루는 성(城)을 뜻하는 고구려의 옛말로 성을 많이 쌓았던 고구려의 문화적 특징을 잘 나타낸다. 즉 돌로 성을 쌓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구려 사회가 주몽을 만나 ‘높을 고(高)’를 더해 ‘고구려’라 새로이 칭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고구려의 칭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자료도 있다. 최근 외몽고 오르곤 강에서 돌궐이 남긴 옛 비문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은 73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 중에 계기 중반에 죽은 돌궐 카한의 장례식에 ‘동쪽의 해 뜨는 나라’에서 조문사가 왔다고 하면서, 그 나라 이름을 ‘뵈클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뵈클리는 ‘매크리’와 통하는 발음으로 곧 ‘맥(貊)구리’가 된다. 이는 맥족인 고구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돈황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위그르족이 남긴 기록에 돌궐인들이 고구려를 ‘무구리’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역시 ‘맥구리’와 통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당대에는 어떻게 발음했을까?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지만, 맥구리, 무구리의 예를 보아 아마도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리’ 또는 ‘고우리’라고 부르는 것이 당시 발음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또한 고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고려’하면 흔히 왕건이 세운 고려 왕조만을 생각하는데, 고구려도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했다.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따온 것이다.

고구려가 언제부터 고려라 불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5세기 이후 중국 역사책에 서부터 고려라 부르고 있다. 장수왕 대(재위 413~491)에 세운 중원고구려비에서도 고구려인이 스스로 ‘고려’라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 분위를 쇠신하는 뜻에서 ‘고려’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 동명성왕 주몽에 얽힌 신화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나라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건국신화를 간직하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한 나라가 건국된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새로운 질서의 당위성과 영원성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으며 장대하고 융성한 기상을 지녔던 고구려 역시 시조 주몽에 대한 건국신화를 간직하고 있다.

동부여의 왕 금와가 행차를 나왔다가 우발수라는 강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 금와왕은 여인에게 까닭을 물었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하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해모수와 사랑을 하여 혼인하였으나 부모님의 허락 없이 혼인하였다 하여 쫓아내시기에 이리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와는 유화를 불쌍히 여겨 궁으로 데려와 지내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화가 지내던 작은 방에 햇빛이 들더니 유화를 따라다니며 비추었고, 얼마 뒤 유화의 배가 불러왔다. 얼마 후 유화는 출산을 하였는데, 아이가 아니라 크기가 닭 되나 되는 큰 알을 낳았다.

“알이라니! 이것은 분명 불길한 징조이리라!”

금와왕은 유화가 알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알을 개와 돼지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러나 개도 돼지도 먹지 않았다. 금와왕은 길 한가운데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소와 말들이 모두 알을 피해 다녔고, 다시 들에다 버렸으나 새들이 와서 알을 품어주었다.

“안되겠다. 내가 직접 알을 깨뜨려야겠다.”

금와는 도끼를 들어 알을 내리쳤지만 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유화에게 알을 돌려주었다. 유화는 알을 따뜻한 곳에 두어 잘 감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나이가 태어났다. 알을 깨고 나온 아이는 생김새도 출중하였고 행동 또한 영특하였다. 특히 어릴 때부터 활쏘기를 좋아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주몽은 금와왕의 일곱 왕자들과 어울려 자랐다. 하지만 주몽이 커갈수록 왕자들에게 주몽은 대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첫째 대소에게는 주몽이 눈엣가시였다.

“주몽을 그냥 두었다가는 부여의 왕위를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대소는 동생들을 모아 주몽을 없앨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분위기를 짐작한 유화는 주몽을 불러 말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뛰어난 사람이니 어디서든 큰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를 떠나도록 해라.”

주몽의 부인 예씨가 임신 중이었지만, 주몽은 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주몽은 그를 따르는 오이, 마리, 협보 세 친구와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이를 눈치 챈 대소와 무리들이 서둘러 주몽을 뒤쫓았다. 주몽이 길을 재촉해 임리수 강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보아도 건널 다리가 없었다. 주몽은 물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나는 하늘의 손자이며 물의 신 허백의 외손자다. 지금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내 뒤를 쫓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느냐?”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들어 다리를 만들어주었고, 주몽과 일행은 대소의 추적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다. 이윽고 졸본 땅에 이른 주몽은 그곳에 도움을 청하고 나라를 세웠으며,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다.

고구려의 건국신화에는 시조인 주몽이 하늘의 아들이며 분명하니, 하늘의 아들이 세운 나라 역시 하늘의 나라임이 분명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같이 하늘이 내린 자손의 국가라는 고구려의 자신감은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국력과 높은 문화적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가 당시 만주 지역에서 독립적이며 강성한 국가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환인호를 바라보며

### 수몰된 고려묘자 무덤떼를 떠올려 본다

고구려의 첫 왕성 흘승골성(혹은 졸본성)터로 알려진 오녀산성을 뒤로 하고 내려오면 산성에서 보았던 환인호의 아름다운 비경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고구려의 유적을 찾아 답사를 나선 길이라면 그 비경이 아름답게만 느껴질 수는 없다. 환인댐의 건설로 고구려 유적이 많이 남아 있던 고려묘자 무덤떼와 장강마을이 환인호 아래로 잠겼기 때문이다.

환인호 동쪽 편을 바라보면 강기슭에 머리를 반쯤 담근 세 개의 돌출된 능선이 보인다. 그중 남쪽 능선이 물속에 잠긴 고려묘자다. 현지에는 '고력묘자' 라고 표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고력묘자라고들 하는데, 본래는 '고려묘자' 였다. 고려묘자와 고력묘자는 현지 중국어 발음이 '까오리무즈' 로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마을' 이란 뜻에서 '힘센 사람들의 무덤(고력묘자)' 으로 바뀐 것이다.

환인댐이 생기기 전 장강마을은 일대에서 농사짓기 좋고 사람 살기

오녀산성에서  
바라본 환강 (환인호)





산성에서 바라본 고려묘자  
오녀산성 동남단 장대에서  
바라본 고려묘자의 전경.  
호수 저편 능선 기슭에 고  
려묘자의 돌무지무덤들이  
남아 있다.

으뜸인 곳으로 통했다.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혼강이 강 안에 널찍한 양질의 충적 대지를 만들어 놓은 까닭이다. 수몰 전 고려묘자와 장강마을에선 고구려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고려묘자 무덤의 연대는 수몰 전 조사에 의하면, 고구려 건국 전후부터 서기 4~5세기까지 환인 일대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일제 시기에 작성된 지도를 보면 고려묘자가 자리 잡은 혼강의 기슭에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다. 넓은 평지와 거기에 조성된 무덤들, 이는 오녀산의 서쪽이었다는 조건에도 들어맞고 있어, 이 지역을 초기 고구려의 평상시 왕성으로 보기도 한다.

오녀산성에 올라서 환인호를 바라보며 물속에 잠긴 고구려인의 자취를 떠올려 보는 것도 초기 고구려를 떠올려 보는 나름의 방법이 될 것이다.

## 오녀산 박물관

어느 유적지나 박물관은 필수 코스다. 당연히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환인에도 오녀산성 사적진열관이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을 대신했던 사적진열관은 규모나 전시물의 내용으로 보나 고구려 초기의 역사를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최근 오녀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번듯한 박물관이 들어섰다. 오녀산 박물관이 그곳이다.

3층으로 구성된 전시실에는 오녀산성 한곳의 역사와 문화만이 아니라, 환인 주변의 초기 고구려 유적의 유물과 그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오녀산성의 발굴 과정에서 나온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다. 그야말로 초기 고구려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로 채워져 있어, 오녀산성을 이미 다녀온 사람에게는 보고 온 바를 되새길 수 있게 하고, 이곳을 거쳐 산성에 오를 경우에는 오녀산성의 전체 상을 머릿속에 담

오녀산박물관 전경



이두고 답사할 수 있어 좋다.

특히 오녀산성을 쌓는 장면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한다거나, 전자책의 형태로 오녀산성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코너는 꼭 들러서 살펴볼 만하다. 잠깐의 관람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녀산성을 관람할 때 유념할 것이 있다. 눈 밝은 사람은 전시 패널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문구가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한·중 간의 역사분쟁이 어느덧 원만하게 매듭지어졌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전시관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우선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그림들이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림들이 중국 한나라의 화상석에서 보았던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어, 은연중에 고구려 문화가 중국 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설명을 단 패널들에는 《삼국지》 등 중국 측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 관련 기사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언급 없이 그대로 발췌하여 전시하고 있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외국인이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고구려가 중국 왕조에 예속되어 있던 나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오녀산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꼼꼼히 전시물과 설명패널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중국이 공들여 만들어 두었지만, 그것이 실제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이곳을 방문해서 얻게 되는 의외의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상고성자 무덤떼

### 살아남은 무덤들

상고성자 무덤떼는 환인시 육도하차항 상고성자촌에 있다. 상고성자촌에서 오른쪽으로는 혼강이 흐르고 더 위쪽에는 그 셋강인 육도하가 흘러든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까운 곳에 하고성자 유적지가 있다.

상고성자 무덤떼는 동쪽의 작은 시냇가를 경계로 삼아 서쪽에는 산자락을 두고, 남북으로는 약 200미터가량 펼쳐져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200여 기의 무덤들이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이후 개간사업이란 명목으로 무덤의 대부분은 파헤쳐지고, 지금 남은 것은 겨우 20여 기뿐이다.

무덤들은 최근 환인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돌무더기로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제법 무덤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무덤떼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고, 입구에는 관리소를 두어 지키고 있다.

상고성자무덤떼



## 고구려 초기 귀족들의 쉼터

무덤은 대부분 돌무지무덤들이다. 그중에서도 형태는 대략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무덤의 네 모서리에 각각 무거운 돌을 놓고 그 사이를 돌로 채워 만든 원시적 기단이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돌을 쌓는 방식은 기단식 돌무지무덤의 초기 형태이거나 혹은 간략화된 것이라고 하며, 연대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기단식 돌무지무덤과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무덤 주위에 커다란 돌을 쌓아 기단을 만든 전형적인 기단식 돌무지무덤으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들이 많다. 보통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쯤 되는 중형급 무덤들이다. 그리고 일부 무덤의 봉분 위에는 타원형 구멍이들이 있는데, 주검을 안치했던 흔적으로 보인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특수한 형태들도 있다. 상고성자 무덤떼 서쪽 끝 부분에서 발견된 기단식 돌무지무덤은 동서 길이가 20미터, 남북 너비가 10여 미터, 높이 2.5미터로 대형에 속한다. 이 무덤의 봉분 위에는 네 군데의 구멍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 무덤방이 여러 개인 가족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고성자 무덤떼에서 발견되는 돌무지무덤들은 집안 지역에서 2~3세기까지 유행했던 돌무지돌덧널무덤이나 기단식 돌무지돌덧널무덤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흥미롭게도 이곳에는 후대의 무덤 양식인 흙무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고성자 무덤떼가 고구려에서 흙무덤이 퍼지기 시작하기 전에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곳 상고성자 무덤떼에는 누가 묻힌 것일까? 고구려의 첫 궁성인 흘승골성으로 보이는 오녀산성이 상고성자 무덤떼에서 멀지 않고, 오녀산성과 짝이 되는 평지성으로 보고 있는 하고성자 성터가 지적인 점으로 미루어, 이곳은 하고성자 지역에 살았던 고구려 귀족들의 공동묘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 고구려 무덤의 변화과정 - 돌무지무덤에서 흙무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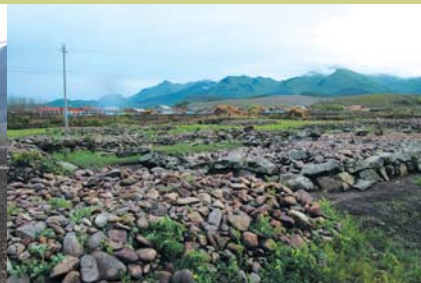
고구려 시대의 무덤은 첫 번째 수도가 있었던 환인과 두 번째 수도인 집안, 그리고 세 번째 수도인 평양과 그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구려 무덤은 봉분의 구조와 재료를 기준으로 크게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무덤(적석총)과 흙을 쌓아 만든 흙무덤(봉토석실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돌무지무덤은 다시 기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계단 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또 주검을 안치하는 무덤방 내부에 천정이 없고 네 벽을 돌로 쌓은 돌덧널과 천정과 무덤길을 모두 갖춘 돌방으로 구분한다.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 고구려 건국 초기 무렵에는 무기단식 돌무지돌덧널무덤 양식이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무기단식 돌무지돌덧널무덤이란 땅을 파지 않고 지상 바닥에 막돌로 사각 모양의 무덤 모양을 잡아 쌓고, 그 중간에 주검이 안치된 관을 놓을 장방형 돌덧널을 만들어 관을 넣은 다음 다시 돌로 쌓는 방식이다.

이후 서기 2~3세기경에는 돌무지돌덧널무덤과 구조는 같지만 무덤 하단에 큰 돌이나 긴 돌로 사각형의 기단을 쌓은 기단식 돌무지돌덧널무덤이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기단부를 계단식으로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계단식 돌무지돌덧널무덤은 대략 3세기 이후에 유행해 4세기 말까지 사용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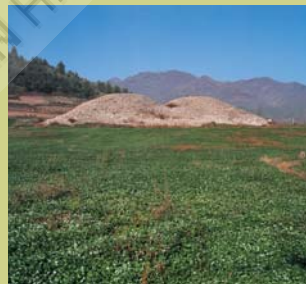
무기단식 돌무지무덤 (간구자 무덤떼)



기단식 돌무지무덤 (상고성자 무덤떼)

4세기 후기에서 5세기까지 유행한 무덤 양식은 지금까지 잘 알려진 천추총이나 태왕릉, 그리고 지금도 그 위용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장군총 등에서 보여주는 계단식 돌무지돌방무덤 양식이다. 계단식 돌무지돌방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계단식 돌무지돌덧널무덤의 구조와 비슷하지만, 주검 칸의 구조가 돌덧널에서 돌로 만든 방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다르다. 이 무덤 양식은 고구려 돌무지무덤 변화 발전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고구려 석조 건축의 찬란한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양식에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대략 3세기 말. 봉분의 외형과 재료의 측면에서 이전의 돌무지무덤과는 완전히 다른 돌방흙무덤이 출현한 것이다. 돌방흙무덤은 대부분 기단이 없고 흙으로만 봉분을 쌓았으며, 내부 구조는 돌덧널 대신 돌방이 주를 이룬다. 돌방은 돌무지무덤에서는 돌덧널처럼 지상에만 설치된 것에 반해, 지하나 반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되었는데, 돌방의 숫자는 하나에서부터 세 개 이상으로 구성된 것, 죽은 이의 위패를 모시는 감실(龕室)을 갖추어진 것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돌방흙무덤이 출현하면서 벽화무덤이 더불어 발전했다는 점이다.

고구려 시대의 무덤은 시대에 따라 그 형식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땅을 파고 주검을 묻는 당시 중국의 무덤 형식과 달리 지상에 주검을 안치하고 주로 돌을 쌓아 만들었다는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양식이다. 이러한 무덤 양식들은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만주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고구려 사람들의 장례 문화와 결합되어 고구려만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다.



계단식 돌무지돌덧널무덤  
(칠성산 211호 무덤)



계단식 돌무지돌방무덤 (장군총)



돌방 흙무덤 (귀간총)

## 하고성자 성터

고구려의 도성 체계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평상시에 거주하는 평지성과 전시의 위험에 대비하는 산성이 함께 짝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집안에서는 국내성과 환도산성, 세 번째 수도인 평양에서는 대성산성과 안화궁이 그 체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첫 도읍지 환인에서 천혜의 요새인 오녀산성과 짝을 이루는 평지성은 어디였을까? 현재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 바로 혼강을 옆에 두르고 오녀산성을 바라보고 있는 하고성자 성터이다.

하고성자 유적지는 상고성자 무덤떼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혼강을 바라보는 마을 하고성자촌에서 만날 수 있다. 강둑 쪽에 난 진입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면 민가에 막혀 꺾어지는 도로 구석에 ‘하고성자 성지(下古城子城址)’라고 돌에 새긴 유적 표지판이 답사자들을 맞이한다.

원래 성벽의 전체 형태는 길고 네모진 형태이고, 흙으로 쌓은 전형적인 토성이다.

**오녀산과 하고성자촌 전경**  
오녀산성을 배경으로 강변 가까이 있는 마을이 바로 하고성자 유적지이다. 산성과 평지성의 전형적인 고구려도성 체계를 보여준다.





하고성자 유적  
서북쪽 모서리에 남아있는  
토성의 흔적

현지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하고성자촌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동문과 남문터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문이 있던 자리는 동벽과 함께 이미 홍수로 완전히 유실되었고, 남문 자리에는 도로가 지나고 있다. 아마도 마을에 난 십자형 도로가 네 성벽을 관통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곳이 본래 각각 동서남북 성문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아쉽게도 서벽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차 낮아져 남쪽 끝 부분은 성벽의 흔적만 남아 있다. 남벽 역시 심하게 파괴되어 형체조차 분간하기 힘들다.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서북쪽 모서리인데, 그나마 성벽 위에 민가가 들어서 있어서 점차 훼손되고 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의 시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고구려를 거쳐 요, 금 시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토기 조각의 경우 오녀산성의 고구려 초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형태이다. 즉 이곳이 고구려 건국 초기의 유적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온전하게 남아 있길 바라는 것이 2천 년이 넘는 세월 앞에서는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흔적만 겨우 남은 하고성자 성터를 돌아 나오는 길은 참으로 이롭다.

## 미창구 장군묘

### 산과 물과 마을을 굽어보며

하고성자 성터를 뒤로 하고 환인사에서 남쪽으로 혼강을 따라 내려가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미창구라는 아늑한 촌락이 나타난다. 이 마을의 북쪽 구릉에 고구려 무덤 10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중 가장 큰 1호분을 중심으로 둘레에 소형 돌방흙무덤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1호분이 바로 장군묘로 불리는 무덤이다.

미창구 장군묘는 지표면에 돌을 쌓아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 봉분을 올린 고구려 중기 이후의 돌방흙무덤이다.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추정된다. 봉분의 높이는 8미터, 둘레가 150미터에 이르는 대형 무덤인데, 이미 훼손되어 무덤이라기보다는 어중간한 구릉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장군묘를 찾아갈 때는 봉긋하고 말끔하게 형태를 잘 갖춘 무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부러 찾지

#### 미창구 장군묘

미창구 마을에서 북쪽 비탈길로 올라가면 볼 수 있다. 세월의 풍파로 작은 둔덕으로 변했는데, 봉분 앞에 '미창구 장군묘'라는 석비가 세워져 있다.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불룩하게 솟은 거대한 둔덕이 장군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은 흙 두덩이 언저리에 그나마 말쑥하게 서 있는 묘비석이다.

장군묘를 찾았다면, 무덤 정상으로 곧바로 오르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자. 그리고 다시 무덤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자. 마을에서는 무덤이 있는 곳이 비교적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촌락의 입지는 물론이고 무덤의 입지까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시선을 멀리 두고 사방을 둘러보면 서로 맞대고 있는 높고 낮은 산들이 마을 전체를 방패처럼 막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 사이로 널찍한 평지가 펼쳐지고, 북쪽에는 짙푸른 혼강이 마을을 휘감아 흐른다. 신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입지 조건이다.

### 풀리지 않는 무덤의 주인공

미창구 장군묘는 돌방흙무덤 형식의 무덤으로 환인 지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대형 고구려 벽화무덤이다. 이 무덤의 방 안은 벽화들로 뽀뽀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벽화의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벽화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무덤은 입구에서 주검이 안치된 널방으로 통하는 통로와 널방, 결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이 나도록 잘 다듬은 돌을 쌓아올려 만든 널방 전체를 수놓은 벽화의 주요 내용은 바로 연꽃이다. 네 벽과 들보, 천정부 그리고 널방 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화로 장식되었다. 벽면 가득 규칙적으로 그려진 연꽃송이들 아래에는 ‘왕(王)’ 자형 꽃받침이 그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결방에는 연꽃 대신 ‘왕(王)’ 자로만 벽 전체가 장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왕’ 자형 도안은 집안 일대의 무덤(장천 2호, 산성하 332호) 벽화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무덤의 주인이 왕족이나 귀족인



미창주장군묘 모형

상류층임을 암시한다. 수도를 이전할 경우는 대개 왕족과 귀족 등 상류층은 왕과 함께 옮겨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당시의 수도인 집안에서 한참 떨어진 이곳에 이토록 정교한 벽화무덤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설에는 고구려 8대 신대왕의 장남 발기가 둘째 이이모에 밀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환인에 자리를 잡고 반역을 꾀하다 실패하자, 그 후손들이 대대로 환인에 거주했을 거라며, 무덤의 주인공을 그 후손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아쉽게도 무덤의 주인공 신분을 밝히기에는 현재의 고고학적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환인과 집안으로 향하는 길. 짧지 않은 그 여정에서 눈을 밝혀 둘러보면 중간 중간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눈길 닿는 곳곳의 길이 모두 요동에서 고구려의 수도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생각이 미치면 새삼스런 감회에 젖는다.

요동에서 수도로 향하는 옛 고구려의 교통로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단연코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다. 이 두 길 이름은 342년 전연(前燕)과 고구려의 한관 승부 때 등장해 역사적으로 유명해졌다.

전연은 3세기 말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나라로, 시조 격인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이 즉위하면서 세력을 키워 요동 지역에서 승승장구한 신흥 세력이었다. 고구려 역시 당시에는 동북아에서는 떠오르는 세력이었으므로, 두 나라의 격돌은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342년 마침내 중원을 도모할 야심을 품은 전연은 후방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먼저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때 전연의 전략가 모용한은 고구려

남도의 추정 경로인  
태자하 연안의 도로



## 태자성

남도 상에 세워진 태자성,  
전연의 침공 뒤만들어졌을까?





동북아시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가는 두 길, 즉 '평탄하고 넓은 북도'와 '험하고 좁은 남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리라 생각한 북도를 버리고 남도로 주력군을 진공시켰다. 상식적인 판단에서 고구려는 정예군을 북도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소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남도를 지키던 고국원왕은 남도에서 대군을 맞아 크게 패했다. 이윽고 국내성까지 함락되어 아버지 미천왕의 묘가 파헤쳐지고 왕모와 왕비 등을 볼모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다.

현재 고구려와 요동 지역을 잇던 남도와 북도가 어디인지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중 요양에서 태자하 산간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경로를 남도, 혼하를 거쳐 소자하 연안로로 이어지는 경로를 북도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어쩌랴. 환인과 집안을 찾아 가는 길, 산세를 살피고 강의 흐름을 살펴 요동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요동으로 통하던 남도와 북도를 가늠하는 것도 고구려 답사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북도의 추정 경로인  
소자하 연안의 도로



## 비운의 왕, 고국원왕

한인과 집안을 향하는 길에 옛날 고구려의 교통로인 남도와 북도를 상상하며 지나노라면, 그 길에서 전쟁의 쓰라린 패배를 겪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재위 331~370)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흔히 고구려하면 상상하게 되는 활발한 정복 활동이나 장엄한 전쟁의 승리라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많은 시련을 겪은 왕이었다. 먼저 고국원왕은 342년 전연을 맞아 도성이 함락당하고 왕모와 왕비가 포로가 되는 대참패를 겪었다. 그뿐인가. 371년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이끄는 3만 군대와 평양성에서 맞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전쟁터에서 왕의 전사, 그것은 고구려 왕실로서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원한이 되었다.

고구려 역사상 최대의 패배를 두 차례나 당했으므로 고국원왕은 무능한 왕으로 치부될 만도 하다. 하지만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적수였던 전연의 당대 최고 전략가 모용한이나 백제 최고의 정복군주 근초고왕은 두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필적할 수가 없는 전략가요, 왕이었다. 그래서 고국원왕이 무능해서 전쟁에 패했다기보다 워낙 강력한 적수를 만나 불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아니 오히려 그의 뼈저린 패배가 고구려를 탈바꿈시켜, 소수림왕-광개토왕-장수왕으로 이어져 더욱 강력한 고구려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고국원왕에게는 국강상왕(國岡上王)이라는 시호가 있다. '고국원'이나 '국강상'은 본래 같은 뜻으로, 고구려는 특이하게도 왕릉이 위치한 장지를 시호로 붙인 경우가 많았다. 광개토왕도 공식 칭호에 '국강상'이란 이름이 들어 있어 고국원왕과 같은 지역에 묻혔음을 알 수 있다. 살아서는 비운의 주인공인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죽어서도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광개토왕은 할아버지 옆에 자신의 무덤을 마련한 것이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오늘날의 교통로와  
남도 북도의 추정 경로



청원

매하구

나통산성

길림성

자안산성  
통화

신빈

구노성

흑구산성

오룡산성

관마장관애

고검지산성

오녀산성

패왕조산성

태자성

하고성자성터

환도산성

집안

성장립자성성

국내성

칠개정자관애

북한





↓  
집안

고 구 려 를 찾 아 서

# 집안 集安

jian

## 1. 답사하기 전에

집안 한눈에 보기 | 집안 돌보기 | 지도와 답사 코스

## 2. 답사 떠나기 - 화려한 고구려 문화의 꽃을 보다

답사 1일- 집안 박물관 · 국내성 · 환도산성 · 산성하 무덤떼 · 오희분 5호묘 · 태왕릉 · 광개토왕릉비 · 장군총 ·  
우산하 무덤떼

답사 2일- 국동대혈 · 모두루총 · 칠성산 무덤떼 · 마선 무덤떼

### 집안 한눈에 보기

역사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위치 중국 길림성 남부, 압록강 북쪽 대안에 위치

면적 3,408km<sup>2</sup>

인구 23만 명

기후 온대 대륙성 기후. 계절풍의 영향이 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 집안 돋보기

집안은 국내성을 비롯해서 환도산성, 태왕릉, 광개토왕릉비, 장군총 등 오늘날까지 고구려 시대의 유적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집안에 도읍을 둔 기간이 400여 년이 넘고 고구려가 건국 이후 동북아의 젊은 국가로 한창 승승장구하며 발전한 때였기 때문이다.

집안으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는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다시 천도할 때까지 모두 18명의 왕이 왕위에 올라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성장했다. 6대 태조왕 때는 한나라의 침입에 대비해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고, 동옥저를 정벌해 영토를 확장했다. 9대 고국천왕 때는 후한 요동태수의 침입을 물리치고 국력을 안정시켰으며, 을파소라는 뛰어난 인물을 재상으로 등용해 백성들을 위한 구휼제도인 진대법을 실

시해 경제적 안정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물론 외적의 침입을 받아 도움을 점령당하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16대 고국원왕에 이르러 전연의 침공을 받아 국내성이 함락되고 선왕인 미천왕의 무덤이 훼손되었으며, 왕모와 왕비를 비롯하여 5만여 명의 백성이 포로가 되는 수도도 겪었다. 그러나 17대 소수림왕 대에 와서는 선왕의 비극을 잊지 않고 중흥의 기틀



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문화를 꽃피웠으며, 국립 교육기관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한 것이 그 예다.

무엇보다 두 번째 고구려의 수도 집안의 전성기이자 고구려 전체 역사의 전성기랄 수 있는 시기는 19대 광개토왕과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의 장수왕 대이다. 광개토왕은 거란을 정벌하고 후연을 물리쳐 요동 지방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등극하였다. 장수왕은 광개토왕이 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며 문화의 꽃을 피웠다.

초기 고구려에서 중기의 화려한 전성기까지 420년간 고구려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였던 집안. 이곳에는 국내성을 비롯한 태왕릉, 무용총 등 고구려의 문화 진수가 숨어 있다.

#### 하늘에서 내려다본

#### 집안 지역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압록강, 그 한복판에 사잇섬인 벌동도의 모습이 보인다. 압록강의 북안이 집안이고, 강 남쪽은 북한의 만포이다. 압록강으로 북쪽에서 흘러드는 통구하를 경계로 동편에는 국내성, 광개토왕릉비, 장군총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서편에는 천추총과 서대묘 등 마선 무덤떼, 칠성산 무덤떼의 여러 무덤들이 남아 있다.

# 지도와 답사 코스

## 답사 코스 1일

(집안 박물관)

▼  
국내성

▼  
환도산성

▼  
산성하 무덤떼

▼  
오회분 5호묘

▼  
태왕릉

▼  
광개토왕릉비

▼  
(임강묘)

▼  
장군총





**답사 코스 2일**

- 국동대혈
- ▼
- 모두루총
- ▼
- 칠성산 무덤떼
- ▼
- 마선 무덤떼

+ 집안에서 공장 심양으로 나가거나 혹은 백두산 일정이 잡혀 있다면 2일차 답사 일정은 가장 서쪽인 마선 무덤떼의 서대묘부터 시작하고, 통화 방면으로 나간다면 고구려 채석장 유적을 보고 관마장관애를 지날 수 있다.

# 화려한 고구려 문화의 꽃을 보다

## 집안 박물관

집안 박물관은 현재 폐쇄되었으며, 신축 중에 있다. 위의 내용은 폐쇄되기 전의 박물관을 다룬 것이다. 새로운 박물관이 문을 열어 전성기 고구려 문화를 살펴볼 날을 고대해 본다.

### 설레는 집안 답사의 첫 코스

집안은 2대 유리왕부터 20대 장수왕까지 모두 420여 년간 고구려의 도읍지였기에, 이들의 여정으로도 벽찰 만큼 답사할 유적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집안 박물관에 제일 처음 가기를 권한다.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집안 박물관에는 집안 시내의 유적 지도가 있어 일정을 가늠해볼 수도 있고, 집안 일대에서 나온 많은 유물과 광개토왕릉비 탁본이 전시되어 있어 답사 전 맛보기로는 그만이기 때문이다.

환인에서 고구려의 처음 모습을 만나고 왔음에도, 고구려 역사의 중심을 만난다는 생각에 집안 답사를 시작하는 박물관으로의 발걸음이 설렌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인과 평양에도 박물관은 있다. 하지만 환인은 오녀산 박물관이라 부족한 감이 있고, 또 평양은 맘대로 가볼 수 없는 곳이니, 집안 박물관이 고구려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으뜸이다.

### 고구려를 보여주는 유물들

박물관에 들어서서 처음 만나는 것은 현관 정면에 있는 광개토왕릉비의 탁본이다. 집안 박물관이 고구려 문화의 집결장소인 만큼 고구려의

표상인 광개토왕릉비 탁본이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모습이 당연해 보인다. 탁트인 평원에 우뚝 선 실제의 비석을 보면 크기가 잘 기늬이 되지 않는 데 비해, 박물관 바닥부터 천장에 닿을 정도의 커다란 실물 탁본은 그 크기와 위용을 미리 느껴볼 수 있게 한다.

박물관의 전시실로 들어서면 집안 지역의 유물들이 원시 시대부터 시기별로 전시되어 있다. 화살촉, 칼, 도끼, 찰갑, 등자, 낫, 보습 같은 쇠로 만든 무기들과 마구, 농기구들이 고구려의 강한 군사력과 농업을 비롯한 생산 활동의 발전 정도를 잘 보여준다.

또 태왕릉에서 발견된 ‘신묘년...’이란 글자가 적힌 청동방울, 도금한 상다리, 세련된 투조기법으로 만든 등자, 사람 얼굴 모양의 수레굴대 등 최근 고구려 왕릉급 고분에서 발굴한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고구려의 높은 문화수준과 기술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귀한 유물들이라고 한다.

집안 박물관 전경



집안 박물관 외부

박물관의 외부에는 석재들이 방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고구려 기와와 전돌, 각종 그릇류, 쇠못, 벼루, 구슬류, 장식품 등 다양한 유물들이 있다. 신라, 백제, 가야권의 유물들과 다르면서도 흡사하다는 것이 새삼 흥미롭다.

### 집안 박물관을 나오는 길

집안 박물관을 돌아 나오는 길, 고구려 문화의 일면을 손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맘껏 보고 느꼈다는 뿌듯함 한편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하나가 가슴에 남는다. 집안 박물관 곳곳에서 발견되는 중국의 동북공정 흔적 때문이다. 집안 박물관에는 유물을 전시하는 중간중간 중국사서에 나오는 고구려 관련 기사를 적은 패널을 걸어두어, 마치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고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나라로 잘못 각인되도록 전시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쩌면 그렇기에 고구려를 찾아온 발길을 더 의미 있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 국내성

### 고구려 문화의 중심

집안 박물관 이후 어느 곳보다 먼저 찾아볼 곳은 국내성이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가장 오랫동안 도성의 자리를 지키면서 고구려의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냈던 곳이기 때문에 답사 1순위다.

어느 시대나 수도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만, 특히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왕과 왕실을 비롯해 대부분의 귀족들이 수도에 거주했기 때문에 수도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말하자면 집안에 남아 있는 모든 유적들이 이곳 국내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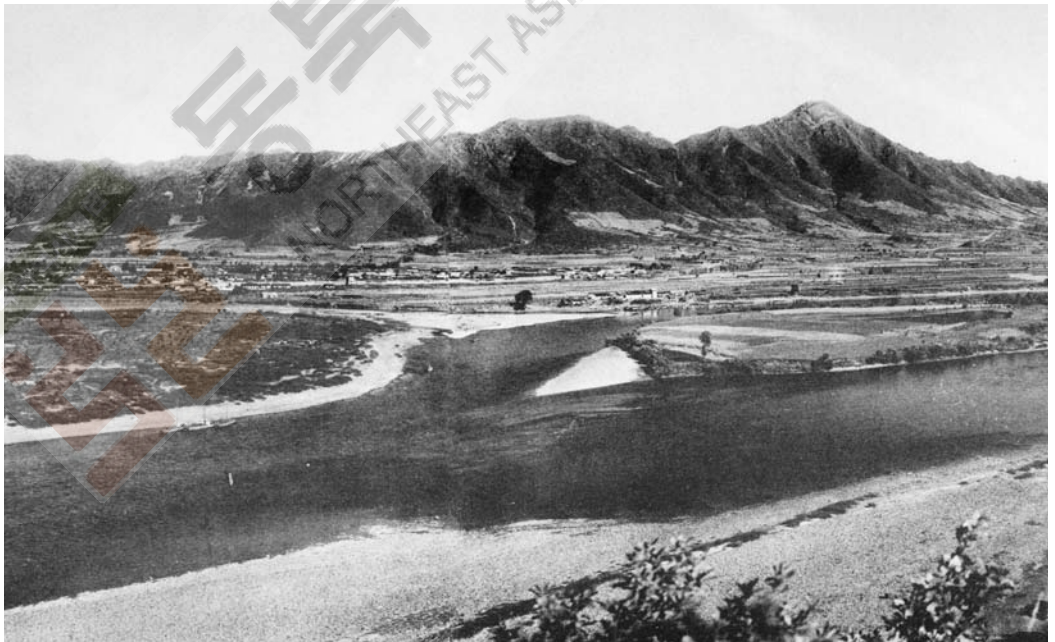
그러면 국내성의 남은 흔적을 보기 전에 왜 이곳은 고구려의 수도가 되었으며, 왜 우리는 이곳을 고구려의 수도로 추정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성이 자리하고 있는 지리환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성은 고구려 도성 체계인 환도산성과 짝을 이루는 통구 평원에 자리 잡은 평지성이다. 서쪽과 남쪽으로 통구하와 압록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우산과 용산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형세는 의산임수(依山臨水),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키기는 쉽고 적이 공격하기는 어려운 형세라 부른다. 전쟁이 잦았던 고대국가에서 수도로 알맞은 자연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한편 국내(國內)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고유 지명이라기보다는 수도 지역을 의미했다. 《삼국사기》에 유리왕이 천도할 즈음 제사에 쓸 돼지가 ‘국내 위나암’으로 달아났다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도성의 명칭은 ‘위나암성’이었던 듯하다. 그런데 평양으로 천도해 별도(別都)로 삼은 이후에도 국내성이라는 지명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성’이란 고유 지명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성이 자리 잡고 있는 통구 분지**  
일제 시대에 찍은 사진으로, 멀리 보이는 우산과 용산을 통해 당시 국내성의 전경을 상상할 수 있다.



## 왕궁터를 찾아

사람이 사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왕도란 한 국가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좀 더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우리가 찾아온 국내성에서도 온갖 사연이 살아 숨 쉰다. 이 왕경 안에서 고국천왕은 자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던 세력들을 제거한 다음, 재야에 묻혀 있던 을파소를 등용해 개혁정치를 펼쳤다. 미천왕은 봉상왕의 아우였던 아버지 돌고개 역모를 꺾었다는 혐의로 죽자, 궁을 도망쳐 나와 머슴살이와 소금장수라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봉상왕이 내몰리자 다시 궁으로 돌아와 당당히 왕위에 올랐다. 그뿐인가. 광개토왕은 이 국내성에서 요동을 평정할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의 아들 장수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나갈 기반을 이곳에서 닦았다.

하지만 천 년이 넘는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일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국내성의 흔적은 아쉽게도 잘 다듬은 돌로 반듯하게 쌓아올린 성벽 일부뿐이다.

국내성은 비교적 반듯하게 네모진 형태인데, 개발의 바람으로 많이 훼손되기 전에는 웬만한 외부의 충격에도 무사할 만큼 구조상 치밀한 성벽을 사방으로 쌓아 올렸다. 서벽과 남벽의 하단 부분이 현재 남아 있고, 남벽 모서리에는 돌출 구조인 치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면 왕궁은 어디에 있었을까. 최근까지 고구려 유지공원(高句麗遺址公園)이 들어서 있는 곳이 유력한 후보지의 한곳이었지만, 발굴 조사의 결과 왕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숙소에 들어가 집안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취 없이 사라진 왕궁과 시가지를 그려 보기 바란다.



국내성 서벽의 배수구



국내성 복문지



## 중국의 동북공정

최근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국가적 연구 사업을 통해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북공정은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일련의 연구사업(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약칭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 소속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라는 기관이 주관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지리·민족 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국가적 중점 사업이다. 중국 당국은 전에 없던 막대한 예산과 연구 인력을 동원하여 이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동북공정이 갖는 큰 문제점은 역시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심각하게 왜곡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영역 내의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구려의 주민은 분명히 우리와 맥을 잇는 예맥족이다. 또 고구려의 활동중심이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고조선이 있었고, 한사군은 그 지역을 일시적으로만 지배하였음을 중국도 인정한다. 뿐만이 아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을 비롯한 지배층이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것 등을 내세워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신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으며, 대부분은 고구려 지역에 남아 발해의 주민으로 살아갔다.

그런데도 고구려와 이를 계승한 발해와 고려 및 조선족이 다르다는 역시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는 지키려는 자의 것임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 돼지가 알려준 도읍지

국내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정해진 데는 돼지와 얽힌 일화가 전해진다.

유리왕 19년, 나라에서 제사의 제물로 쓰려 했던 돼지가 달아나는 일이 일어났다. 유리왕은 제물을 담당하던 관리 탁리, 사비에게 돼지를 뒤쫓아 가게 했다. 이들은 돼지를 잡자마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잘랐는데, 이 일이 유리왕의 노여움을 샀다. 유리왕은 “하늘에 바칠 희생 제물에 어찌 상처를 낼 수 있는가.”라면서 이들을 구덩이에 넣어 죽였다.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데, 돼지가 또 달아났다. 이때 제물을 담당하던 설지가 국내 위나암까지 쫓아가서 잡아, 그곳 사람의 집에 가두고 돌아와 왕에게 알렸다.

“국내 위나암에 갔더니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곡식 농사를 짓기에 편하고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도읍을 옮기면 백성의 이로움이 끝이 없을 것이고 군사를 일으키는 어려움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유리왕은 몹소 국내 위나암을 둘러보고는 흡족해했다. 그리하여 도성을 쌓게 하였으며, 서기 3년에 마침내 수도를 국내로 옮겼다. 이로써 400년간의 국내성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와당

## 산 위의 궁전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환도산성은 집안시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고구려는 수도에 평지성과 산성을 쌓고, 평상시에는 평지성에 거주하다가 적이 침입하면 산성으로 들어가 대항했는데, 환도산성은 이러한 고구려의 수도방위 체계에 따라 평지성인 국내성과 짝을 이루는 산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도산성을 멀리서 바라보노라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라는 사실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남문에 이르면 정연하게 쌓아올린 성벽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가장 잘 남아 있는 구간은 북쪽 성벽으로 높이가 5미터 정도에 이른다. 또한 동벽 남단의 성가퀴 안쪽에서는 기둥구멍이 20여 곳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북벽과 서벽에서도 보이는 이 기둥구멍은 성벽 위에 석녀와 같은

### 환도산성 성벽위의 기둥구멍

이러한 기둥구멍은 오녀산성·고검자산성 등 초기 고구려 지역의 산성을 비롯하여 요동의 산성에서 발견된 바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 연천군의 당포성에서도 발견되어 고구려 성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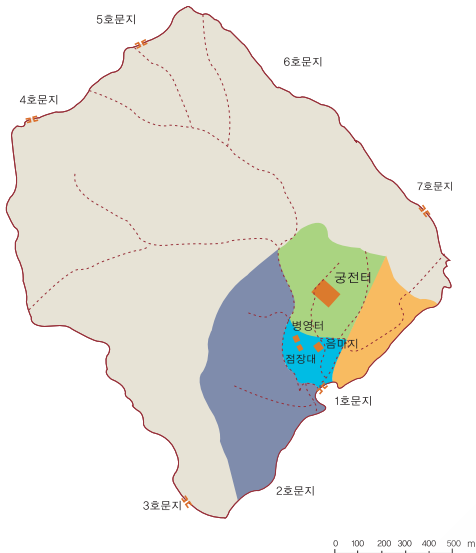
## 환도산성 궁전터

위쪽이 남문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장방형으로 궁전이 건설되었다.  
초석의 배열로 궁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환도산성 평면도



무기를 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

궁전터가 확인되어 임시 궁전으로 쓰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환도산성에는 모두 7개의 성문이 세워져 있다. 이 중 남쪽에 있는 1호문지가 정문이다. 1호문지 남문만이 평지에 축조되어 있고 나머지 성문은 산비탈이나 산꼭대기의 전략적 방어 요지에 있다. 동벽, 남벽, 북벽에 각기 두 개의 성문이 있고, 서벽에는 남쪽에 한 개의 성문이 있다.

환도산성을 답사하려면 그중 정문인 남문을 통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산모퉁이를 끼고 좁은 산길을 돌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환도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산성 아래에 널찍한 도로를 만들었다. 이 길을 이용하면 곧바로 성 아래에 도착할 수 있다.

성문이 자리 잡은 곳은 환도산성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작은 개울이 문길을 지나 통구하로 흘러든다. 성벽이 성문 부근에서 안쪽으로 오르러들면서 장방형의 웅성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서서 보면 환도산성은 동서의 두 방향으로 산봉우리를 향해 올라가는 형상을 띠고 있다.

### 실감하는 천혜의 요새

남문 안으로 들어서면 완만한 비탈을 하고 있는 성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성안에는 건물터 세 개, 저수지 두 개와 돌무지무덤 36기, 돌방흙무덤 2기 등 모두 38기의 무덤이 있다. 세 개의 건물 가운데 하나



는 궁전터이고, 하나는 장대터이며, 하나는 망루터이다.

남문에서 올라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음마지(飲馬池)’라는 조그만 연못이다. 최근 발굴 결과에 따르면 수직으로 연못을 파고 돌벽으로 다듬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아 성 안의 사람과 말의 식수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음마지에서 서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조금 오르면 장대가 나온다. ‘점장대 혹은 ‘요망대’라고도 하는데, 돌로 층층이 쌓아놓은 높이가 보통 사람 키의 예닐곱 배에 이른다. 장대에 올라서 보니 궁궐터와 병영터, 음마지 등 성 안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남문 앞으로 흐르는 통구하와 그 너머 국내성이 있는 집안 시내의 모습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과연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가 성 안밖의 사정을 살피며 전

#### 함도산성 내부

통구하의 오른쪽으로 산성 하 무덤떼가 펼쳐져 있고 그 뒤쪽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산성의 총 길이는 6,951미터에 달한다.



점장대



남벽의 배수시설

투를 지휘하던 곳이었구나 싶다.

장대의 북쪽으로는 평평한 대지 위에 줄줄이 서 있는 주춧돌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장대를 지키는 수졸들이 거주했던 병영터로 추정되는 곳이고, 조금 더 가면 궁궐터를 만난다. 평탄하고 완만한 대지 위에 자리하고 있는 궁궐터 주변에서 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난방 시설은 발견되지 않아서 환도산성의 궁전은 여름철에만 사용한 하궁(夏宮)으로도 추측되고 있다.

환도산성의 건축 시기는 《삼국사기》를 보면 서기 3년이라고 전한다. 발굴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환도산성과 성내의 각종 건축물은 대략 3세기 중엽에 외부의 침공에 대비해 건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도산성 전경(성균관대 박물관)



## 산성하 무덤떼

환도산성을 둘러보고 내려오면, 산성 바로 아래 펼쳐진 무덤떼를 자연스럽게 만난다. 무려 1,582기의 무덤이 모여 있다는 이곳의 이름은 산성하 무덤떼이다. 통구하의 물안개라도 든 날이면 돌무지무덤과 흙무덤이 흐릿한 안개와 뒤섞여 자못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이곳은 형무덤이나 아우무덤과 같은 중대형 돌무지무덤들과 '왕(王)'자 무덤, 미인무덤 등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벽화 무덤들로 유명하다. 무덤 안에 연꽃무늬그림이 있어 연화묘(蓮花墓)라고도 불리는 돌방흙무덤 양식의 983호 무덤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산성하 무덤떼에서 왕릉급 무덤으로 확인된 것은 집안 시내에 다다를 즈음 우산 서쪽 자락에 위치한 산성하전창 36호 무덤이다. 해발 약 230미터에 위치한 이 무덤은 동남쪽으로 국내성과 압록강을 내려다보는 좋은 위치에 있는 데다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 일찍부터 왕릉으로 주목을 받은 곳이다.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무덤으로, 주변에 있는 중소형 무덤을 이 무덤에 딸린 무덤인 배총이라고 보기도 한다. 어떤 왕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덤의 전체적인 양식과 출토 유물로 보아 대략 서기 1세기경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고구려 도성의 구조 - 평지성과 산성

고구려는 일찍부터 험준한 요새지에 평상시 도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성곽을 축조해, 적이 침공하면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방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통과 생활기반이 편리한 평지에 도성이 위치하는 것이 어려므로 당연하다. 하지만 고구려의 경우 늘 주변 국가들과 전쟁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전시에 대비해 방어에 유리한 산성을 따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어 체계는 주몽이 환인에 도읍한 건국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산성이 들어서 있는 오녀산은 해발 82미터나 되며 사방이 수직 절벽으로 평지와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군사방어에 천혜의 요새지로 작용하지만, 일상거주지로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오녀산성을 궁성으로 이용했다더라도 후에 접근이 용이한 평지에 성을 구축했을 것이고, 현재까지는 하고성자 성터가 평지성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국내 지역에서는 이러한 평지성-산성 구조가 확실히 구축되었다. 국내성은 평지성으로 평상시에 도성으로 기능하고 환도산에 구축한 환도산성은 비상시 군사방어성이면서 임시 궁성으로 사용되었다. 고구려의 세 번째 도읍지인 평양에서도 평지성인 안학궁과 대성산성이 짝을 이룬 것으로 확인돼 이중 구조를 가진 독특한 고구려의 도성 구조를 알 수 있다.

## 왕을 위해 죽은 밀우와 유유 이야기

한도성은 245년 고구려를 침략한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에 의해 함락된 적이 있다. 당시 11대 동천왕은 추격하는 적을 피해 한도성을 빠져나와 급히 남옥저로 달아났다. 가는 도중에 군사들도 거의 흩어진 상태였다. 뒤쫓아 오는 적군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했다. 그러자 밀우가 왕 앞에 나섰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적을 막을 테니 그 틈을 타 왕께서는 어서 길을 잡으십시오!”

그리고는 결사대를 모아 적진으로 달려가 싸우다 쓰러졌다. 이 틈을 타 겨우 사지에서 벗어난 동천왕은 흩어진 병사들을 모은 뒤 명했다.

“밀우를 데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유우구가 자청했다. 그는 곧장 전장으로 달려가 쓰러져 있던 밀우를 업고 돌아왔다. 동천왕이 밀우를 손수 무릎에 얹혀 돌보니 밀우는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났다. 그래도 여전히 전세는 불리했다. 그때 유유라는 사람이 다시 나섰다.

“사세가 매우 위급하오니 헛되이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싸들고 적진으로 가 거짓으로 항복했다. 그리고는 적장 앞에 나아가 음식을 바치는 척하면서 그 안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어 적장을 찌르고 자신

도 함께 죽었다. 장수를 잃은 위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졌다. 동천왕은

이 틈을 타 군사를 모아 다시 공격했고 마침내 위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천왕은 신하와의 관계가 이토록 돈독해서 죽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가까이 모셨던 신하 중에는 따라 죽으려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아들인 중천왕이 예가 아니라며 말렸지만, 장례하는 날 능에 와서 자살한 사람이 많아 사람들이 웃옷 앞섶을 베어 시체들을 덮어주었고 그래서 그곳을 시원(柴原, 쇄동산)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관구검 기공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산성하 무덤떼

환도산성에서 내려다본 무덤떼



## 태왕릉

### 그곳에 왕이 계셨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고,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들 또한 많다. 하지만 누구보다 후손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호방한 기운을 불러일으켜주는 왕은 아마도 광개토왕이 아닐까? 가장 고구려다운 왕,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세운 광개토왕이 계신 곳, 그곳으로 유력한 곳이 바로 태왕릉이다. 태왕릉은 국내성에서 동쪽 우산(禹山) 아래 형성된 무덤떼 가운데 장군총과 멀지 않은 거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

태왕릉이라는 이름은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 바라건대 태왕릉이 피처럼 안정되고 높은 산처럼 굳건하기를)’이라는 글씨가 찍힌 벽돌이 무덤 주변에서 발견되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태왕릉을 광개토왕의 능으로 추정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태왕릉





태왕릉의묘실

태왕릉의 주인인 '태왕'은 과연 누구인가? 고대시대에 태(太)와 대(大)는 같은 한자로 쓰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왕호에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경우에서 후보자를 일단 추릴 수 있다.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그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태왕릉의 무덤 형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 무덤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형식이 변화되어 왔기에 태왕릉의 무덤 형식을 보면 그 무덤이 조성된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왕릉은 현재 기단석은 무너지고 무덤 안에 쌓아 넣었던 강돌과 산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지만, 분명 네모난 계단식으로 만든 돌무지 무덤이다. 그리고 현재 집안 지역에서 확인된 무덤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 '태왕'의 왕호를 쓰는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은 모두 2세기 고구려 발전기에 왕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2세기경의 고구려 무덤은 아직 거대한 기단을 쌓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태왕릉은 대왕의 왕호를 쓰는 남은 한 사람, 광개토

왕의 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태왕릉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광개토왕릉비가 서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 고구려의 강건함이 배어나는 태왕릉

현재 태왕릉의 기단은 무너져 있어 몇 개의 층을 이룬 능이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대의 피라미드에 비견될 만큼 그 모양새가 잘 남아 있는 근처의 장군총이 7층의 단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태왕릉 역시 본래 7층이나 8층짜리 무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덤의 주인공을 광개토왕으로 보는 견해가 맞다면, 고구려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의 업적에 걸맞게 그토록 거대하게 조성된 것은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다.

태왕릉을 찾아서는 측면에 마련된 철제계단을 통해 정상을 올라보는

#### 태왕릉과 광개토왕릉비

임강묘 쪽에서 바라본 태왕릉 오른쪽에 광개토왕릉비가 보인다.



## 왕의 이름으로 묻히다

동쪽 냇가에 묻힌 왕, 서쪽 냇가에 묻힌 왕, 아름다운 냇가에 묻힌 왕. 고구려의 동천왕(東川王), 서천왕(西川王), 미천왕(美川王)의 이름을 풀면 대개 이런 뜻이 된다. 고구려는 특이하게도 후대와 달리 왕이 죽어서 묻힌 곳의 이름을 따서 왕호가 붙은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장지명 왕호라 하는데, 이는 민중왕(閔中王), 모본왕(慕本王)처럼 고구려 초기뿐만 아니라 9대 고국천왕~18대 고국양왕 시기, 그리고 평양 천도 이후에는 23대 안원왕~25대 평원왕까지 사용되었다.

민중왕의 예를 보면 민중왕의 무덤은 그가 사냥 나갔다가 발견한 석굴에 민중왕 본인의 명에 따라 마련되었는데, 석굴이 위치한 곳이 민중원(閔中原)이어서 민중왕이 되었다. 또 고국천왕의 경우 《삼국사기》에 따르면 왕이 죽자 그를 고국천원(故國川原)에 장사 지내고 고국천왕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고국천왕은 국양왕(國襄王)으로도 불렸다. 천과 양(襄)은 서로 의미가 통하는데, 18대 고국양왕의 왕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왕이 묘역을 함께 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국강상왕으로 불리기도 한 16대 고국원왕은 장지가 국강상으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으로 불리는 광개토왕과 묻힌 지역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무덤이 놓인 들판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장지명과의 연관성을 찾고 왕의 능을 찾아보는 것도 고구려를 답사하는 특별한 재미가 아닐까.

것이 좋다. 태왕릉에 올라서면 일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앞쪽으로는 광개토왕릉비가 보이고, 오른쪽 언덕 위에는 임강묘, 멀리 용산 아래 장군총이 보인다. 그뿐인가. 남쪽으로는 압록강과 그 너머로 북한 땅까지 이득하게 보이고, 서북쪽으로는 우산과 그 산자락 아래 펼쳐진 무덤떼들이, 서남쪽으로는 집안 시가지와 국내성터가 보인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느라 중국이 무덤방 입구를 석회암과 색깔이 비슷한 시멘트로 마무리를 한 것,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돌들의 모습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 고구려인들이 남긴 자취들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드시 답사해야 할 곳이다.

## 광개토 왕릉비

### 고구려의 꿈을 말하다

태왕릉을 뒤로 하고 그 감동을 이어 찾아갈 곳은 바로 고구려를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광개토왕릉비다. 이 비석은 고구려의 19대 왕인 광개토왕의 훈적을 기리고 고구려 역대 왕릉을 안전하게 지키며 관리하기 위해, 왕이 죽고 2년 뒤인 414년 9월 29일에 그 아들 장수왕이 세웠다.

높이는 7미터, 한 면의 넓이는 1~2미터, 무게는 약 37톤에 이르는 광개토왕릉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를 압도한다. 현재 보호의 목적으로 투명 플라스틱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지만,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느낌만은 여전히 전해준다.

그 어떤 역사서보다 사실적으로 5세기 고구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광개토왕릉비. 그 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는 고구려 왕실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다. 해와 달의 아들이자 물의 신 하백의 외손인 주몽이 북부여에서 내려와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것과 고구려는 이후 2대 유리왕부터 19대 광개토왕으로 이어졌으며, 광

개토왕이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아쉽게도 서른아홉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이다.

2부에는 광개토왕이 즉위 후 전개했던 정복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연대순으로 열거하였다.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395년 거란을 정벌하고, 그 이듬해에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을 차지했으며, 400년에는 원병을 보내 신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던 왜 세력을 내쫓고 가야 지역까지 진군케 하였다. 이 밖에도 숙신, 왜, 동부여를 상대로 거둔 전적들이 묘사되어 있다.

끝으로 3부에는 광개토왕을 비롯한 역대 왕들의 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묘제(守墓制)를 개혁했다는 것과 묘지기의 구성과 관련 법령을 기록하고 전체 글을 마무리했다.



**광개토왕릉비**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광개토왕릉비



광개토왕릉비의 탁본  
(서울대 박물관)

## 천년을 기다린 역사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우리 민족의 영토가 한반도로 좁혀지면서 잊혔다가, 19세기 후반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비에 적힌 “이에 비석을 세워 훈적(勳績)을 명기하여, 후세에게 보인다.”라는 소망대로, 후손들에게 진정한 고구려를 알리기 위해 천 년을 비바람 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을 광개토왕릉비! 그 앞에 서면 선조들의 역사와 아버지의 업적을 한 자 한 자 새기며 고구려를 강건하게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장수왕의 의지가 전해지는 듯 경건함이 저절로 우러난다.

그런데 최근 비문이 새겨진 암석의 유래에 대해 지질학자들의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다. 비석은 회흑색 응회암의 재질로, 이 암석은 집안과 환인, 그 부근 일대 몇 곳에 분포해 있는 암석이다. 지질학자들은 광개토왕릉비의 경우 가장 비슷한 성격의 석재가 있는 곳은 주몽이 최초로 나라를 세웠던 환인의 오녀산성 하단부이며, 광개토왕릉비만큼 큰 덩어리의 암석이 채취될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흥미로운가. 고구려가 시작된 곳에서 가져온 돌에 고구려의 역사를 새긴 것이라면 광개토왕릉비는 지금은 물론이요, 5세기 고구려 당시에도 신성한 의미를 띤 성물이었을 것이다. 비록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 있어 비문을 읽기는 힘들지만 천천히 비석을 쓰다듬듯 돌아보자. 천년을 기다린 고구려의 혼이 역사를 전하는 기운이 분명 느껴질 것이다.

### 집안 왕릉 답사의 백미

광개토왕릉비 비각을 나와 태왕릉의 오른쪽 용산 자락으로 발길을 돌리면 집안 지역 왕릉 답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장군총을 만날 수 있다. 이 무덤은 제단과 배충을 갖춘 전형적인 계단식 돌무지돌방무덤으로 국내성 시기에 만들어진 왕릉 중 가장 나중의 것이다. 때문에 광개토왕의 무덤일지 장수왕의 무덤일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무덤은 지금도 7단으로 된 웅장한 모습이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고, 그 외형이 피라미드와 비슷하다 하여 '동방의 피라미드' 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장군총은 1500년이 넘는 세월을 어떻게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일까. 그 모양새를 자세히 보면 해답이 있다. 장군총은 1천여 개에 달하는 잘 다듬어진 돌로 쌓았고, 그 안에는 강돌을 넣어 다져 만들었다. 그리고 무덤이 돌의 무게에 눌러 흘러내리지 않도록 거대한 돌을 한 번

장군총

장군총에서 바라본 일대 전경(성균관대 박물관)





장군총





장군총 동남 묘사리와 호분석

에 세 개씩 세워놓았다. 한 층 한 층 단단하게 쌓은 돌의 재질은 화강암이다. 돌과 돌이 맞물려지도록 배치한 수법은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돌을 다루었으며, 그 솜씨가 정교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돌을 들여쌓으려고 만들어 놓은 홈은 이들의 알뜰살뜰한 면모가 더 잘 드러난다. 어떤 물건이든 잔뜩 쌓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밀려나게 되고, 언젠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장군총을 쌓은 고구려의 석수장이들은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저절로 밀려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돌을 올려놓기 전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서 돌을 고정시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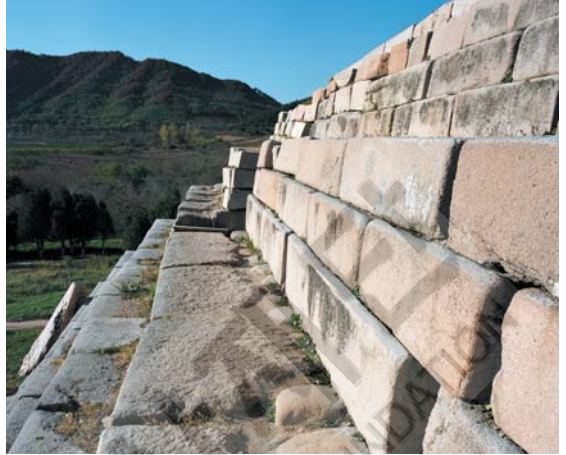
### 고구려를 완성한 장수왕

고구려는 왕이 죽으면 무덤을 쓴 장지(葬地)에 따라 왕호를 붙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광개토왕도 정식 왕호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지금의 광개토왕릉비가 서 있는 곳 일대가 국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장수왕은 좀 다르게 왕의 시호를 장수(長壽)라 했다. 그는 무려 79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장수하였기에 특별하게 불린 듯하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왕이 영토 확장과 이를 통해 강력하게 구축한 왕권을 바탕으로 안과 밖으로 고구려를 전성기에 올려놓았다. 중국의 남북조에 대해 무력 시위와 외교를 적절히 구사하여 고구려가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개로왕을 죽이고 영토를 한강 이남까지 확장했다. 또한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그런데 평양으로 천도하였음에도 국내성 곳곳에서는 장수왕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천 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아버지 광개토왕의 위업이 생생하게 전해지도록 한 왕릉비와 국내성을 굽어보고 있는 장군총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장군총 앞에 서서 당대 고구려 최고의 기술로 정교하게 조각된 돌들과 전혀 다듬지 않은 호분석의 강건한 조화를 보노라면,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고구려 역사의 정점이듯이 태왕릉과 광개토왕릉비, 장군총을 둘러본 발길이 고구려 답사의 정점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친다.



장군총의 들어쌓기모습

장군총 측면(성균관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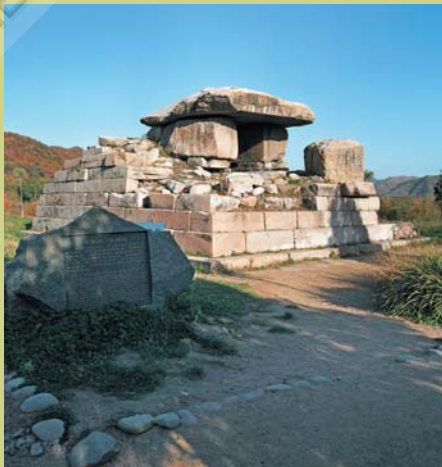


## 왕릉급 무덤의 부속시설

한 나라의 묘제를 살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한 죽음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문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대 국가의 무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 왕릉급 무덤은 후대에게 미루어 짐작할 유물을 많이 남겨주기에 특히 더 그렇다.

고구려 왕릉급 무덤의 경우는 부속 시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왕릉급 무덤에는 우선 제사를 지내는 제단 시설이 딸린 경우가 있는데, 제단의 방향이나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 제단이 있는 무덤은 예외 없이 거대한 돌무지무덤이다. 태왕릉을 비롯해 장군총, 임강묘, 마선구 626호묘, 서대묘, 칠성산 211호묘와 우산 992호묘 등 모두 아홉 곳이 이에 속한다. 이 밖에 고구려 무덤에는 배총이 있다. 큰 무덤에 딸려 있어서 '딸린 무덤'이라고도 한다. 배총에 어떤 인물이 묻혔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된 경우는 없다. 왕을 모시던 신하 가운데 신임을 받던 인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배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곳에 누가 또는 무엇이 묻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배총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장군총이다. 장군총의 배총은 원래 4기 혹은 5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1호 배총만 남아 있다. 배총은 화강암과 석회암 등을 쌓아 만들었고, 기단을 쌓은 방식은 장군총과 비슷하다. 최근 태왕릉 등 왕릉급 무덤들에서 배총이 더 발견되었다.



장군총의 배총

태왕릉과 장군총이 속해 있는 무덤떼가 국내성 동북쪽에 있는 우산 아래 형성된 우산하 무덤떼다. 집안에서 가장 많은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태왕릉과 장군총 외에도 왕릉급으로 확인된 무덤은 우산 2110호와 992호, 임강묘 등이 있고, 사신무덤, 무용총, 각저총 등의 벽화무덤들도 즐비하다.

### 우산 992호와 임강묘

우산 992호는 오회분 4, 5호 무덤을 지나 우산촌(禹山村)과 철길 사이에 있는 왕릉급 무덤이다. 무덤의 형태는 양쪽에 제단이 있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민가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그나마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현재는 모두 7단이 남아 있다. 무덤의 형식이나 규모, 금으로 만든 부장품들로 연대를 추측해 보면 고국원왕의 무덤일 가능성도 있다.

임강묘은 광개토왕릉비에서 시냇물을 건너 언덕을 올라가면 나온다. 많이 무너졌지만 제단을 갖춘 제법 큰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압록강 곁에 있다고 해서 임강묘라 부르는데, 청동으로 된 사람 모양의 수레 빗장과 금동 관 꾸미개 등의 유물이 나와 왕릉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정상 태왕릉과 광개토왕릉비를 보고 장군총으로 가면서 들르면 좋다.

### 오회분과 5호묘의 벽화

오회분이란 우산하 무덤떼 중에서도 대형 무덤들이 모여 있어 ‘우산 귀족묘지’로 분류하는 지역에 서에서 동으로 일직선에 나란히 사발을 엮은 것처럼 자리한 다섯 무덤을 말한다. 그중 2호묘가 가장 크다. 3호묘와 4호묘, 5호묘는 서로 비슷한 규모인데, 특히 4호묘와 5호묘의 벽화는 그 필치와 화법이 우수해 집안 지역 고구려 벽화무덤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무덤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와 무덤방으로 이루어진 돌방흙무덤 형식



오회분 4호묘의 모습

의 무덤인 오회분 5호묘 벽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벽면에 그려진 역동적인 <사신도(四神圖)>이다. 남벽에는 높이 회를 치는 붉은 빛깔의 쌍주작, 서벽에는 금방이라도 뛰쳐 나갈듯한 백호, 동벽에는 두 눈을 부라린 청룡, 북벽에는 네 발로 당당히 버티고 선 현무 거북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4호묘의 벽화도 거의 흡사하다.

오회분 5호묘의 벽화는 무덤 안에 들어가 감상할 수 있다. 벽화의 보존을 위해 개방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덤 안에 들어간다는 생경함과 사진자료로만 보던 고구려의 벽화를 실물로 보게 된다는 설렘이 교차한다.

그러나 흥분을 식히고 찬찬히 돌아보고 형상을 기억해 두자. 벽화는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형상과 달라져 있다. 부분적으로는 그림이 사라진 곳도 보인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무덤의 개방으로 인해 손상의 상태가 심각해져 결국 폐쇄된 오회분 4호묘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무용총과 각저총

고구려인의 춤사위와 씨름하는 모습을 벽화로 아름답게 표현해 유명

##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을까?

아주 오랜 옛날 고대인들은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다고 믿었고, 현세와 똑같이 살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생각은 무덤에 그대로 반영됐다. 무덤을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덤에 방을 두어 꾸미거나 살아생전 무덤의 주인이 쓰던 물건을 함께 넣고, 심지어 부리던 신하를 함께 묻었다. 무덤에 벽화를 그려 넣은 것도 무덤을 단순히 시신을 두는 공간이 아닌 나뉠의 소유주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무덤의 주인이 사후세계에서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산 자의 염원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고분벽화의 내용과 그 소재는 시대에 따라 당대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 사후세계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구려 벽화무덤은 무덤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략 세 단계로 변화를 거친다. 초기 벽화의 내용은 무덤 주인의 초상과 연회, 수렵, 실내 생활 등 생활풍속을 주로 담고 있다. 즉 무덤 주인의 풍요로웠던 현세의 삶이 내세에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뜻이 담겨 있다. 중기에 접어들면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적인 제재, 즉 비천, 연꽃, 화염문 등이 많이 그려졌고, 도교적 색채인 사신도 등이 많이 그려졌다. 후기에는 생활풍속이나 불교적인 그림은 거의 사라지고 도교의 유행에 따라 사신과 일월성신, 황룡 등이 벽화의 주요 주제로 떠오른다.

각저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죽오와 복두칠성, 신선  
무용총의 무덤방 오른쪽 벽  
상단(성균관대 박물관)



참수도  
 마조묘 북쪽 무덤방 왼쪽 벽  
 (성균관대 박물관)



무덤주인과 두 부인  
 각자총의 무덤방 정면 중  
 양벽(성균관대 박물관)

한 것이 무용총과 각저총이다. 무용총과 각저총은 돌방흙무덤의 무덤 형식이며, 멀리 남쪽으로 압록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아스라이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자리해 있다.

각저(角抵)라는 고구려의 씨름을 하고 있는 고분벽화가 있어 이름 붙은 각저총은 무덤 내에 앞방과 주검을 안치한 널방을 가진 돌방흙무덤 형식의 무덤이다. 내부에는 씨름도 외에도 무덤방의 주인공 부부가 그려진 벽화와 삼족오나 나무, 화염문 등 여러 기하학적인 무늬를 그려 넣은 벽화가 있다.

고구려를 표현하는 대표 그림인 <무용도>가 있어 이름 붙은 무용총은 각저총과 같이 앞방과 널방을 가진 돌방흙무덤의 무덤형식이다. 각저총과 벽화의 분위기도 비슷한데, 무용총에는 고구려인이 사냥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린 <수렵도>라는 유명한 벽화가 하나 더 있다.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색채와 운동감으로 잘 알려진 그 벽화이다. 또한 사방 모서리에 실제 기옥을 상징하듯 목재 건축물 구조를 그려놓고 그 위로 천상을 상징하는 화염문을 장식했다.

현재 이십계도 벽화의 보호를 위해 두 무덤 모두 내부 관람은 금지된 상태이다.

### 동쪽의 수혈을 찾아

국동대혈은 고구려의 나라 제사인 ‘동맹’을 모시던 동굴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집안시 상해방촌 흥동자 마을, 그러니까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태왕릉과 장군총을 지나 17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산 계곡에 있는 동굴이 국동대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에 잡힐 듯 압록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곳에 위치한 국동대혈. 수신(舜神, 고구려 사람들이 국토신 혹은 생산신으로 받든 신)을

국동대혈

맞은 곳으로 추측하는 수혈이다. 남쪽을 향해 입구를 벌린 모습이고, 입구 앞에는 넓은 평대가 있다. 이 평대에 100명은 능히 모일 수 있을 정도여서 친히 행차한 고구려의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모시기에 알맞아 보인다. 이곳에서 좀 더 오르면 하늘과 통한다는 의미의通天洞(通天洞)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용암동굴이 있는데, 이곳에 한 변의 길이가 2미터쯤 되는 천연 석대(石臺)가 놓여 있다. 근처에 또 다른 동굴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수혈에서 모셔온 수신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곳으로 간주된다.

###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린다

두 개의 동굴에서 고구려 왕은 어떻게 동맹이라는 제천 의례를 치렀을까. 먼저 수확제의 성격이면서 고구려의 시조 동명과도 관련이 있어 시조제의의 성격을 지닌 동맹에 대해 서술한 기록을 보자. 《삼국지》〈위지동이전〉 고구려편에 이렇게 전한다.

“매년 10월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국중에 모여 큰 대회를 갖는데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어 수혈(水穴)이라 하는데 10월 국중대회 때 수신(隧神)을 맞이해 국동상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의 신좌(神座)에는 나무로 만든 수신을 안치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보면, 고구려는 매년 10월 추수가 끝나고 국내성 동쪽에 위치한 큰 굴(국동대혈)에 가서 수신을 맞이하고, 신목(神木)을 만들어 신좌에 안치하고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낸 듯하다. 수신은 동굴에서 나오므로 땅을 대표하는 지모신의 성격을 띠는데, 아마도 주몽의 어머니 유희를 지모신으로 승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제천이란 본디 하늘의 천신께 지내는 것인데, 고구려는 이렇게 동굴에 수신을 모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함께 제사를 올려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염원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 광개토왕과 장수왕을 모신 모두루

집안 시내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만포철교를 지나면 중국에서 염모(善牟)묘라고 부르는 모두루총(牟頭婁塚)을 만날 수 있다. 돌방 흙무덤의 무덤 형식인 모두루총은 집안 일대에 널리 퍼져 있는 무덤들 가운데 중간급 정도의 규모이다. 천 년 넘게 풍상을 겪다 보니 지금은 많이 쇠락한 모습이다. 집안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상 시간이 허락되면 꼭 가보기를 권한다.

왕릉급의 무덤들도 많은데, 굳이 중급 귀족이었던 모두루의 무덤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 그것은 모두루총이 집안 일대의 많은 무덤 가운데 무덤 주인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기 때문이다. 무덤의 주인이 모두루라는 것은 무덤 안 널방 앞에 있는 방 벽면에 쓰여 있는 기록에 의해 알려졌다. 널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입구 위쪽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800여 자의 기록은 모두루 가문의 내력과 주요 행적을 적고 있다. 이처럼 죽은 이의 주요한 이력을 무덤 속에 기록으로 남긴 것을 '묘지(墓誌)'라 하는데, 모두루의 묘지는 고구려의 정치·사회·문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생생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방전면에 위치한 묘지**  
죽은 이의 주요 이력을 기록해 무덤 속에 넣어둔 기록 묘지에는 조상으로부터 무덤의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일가의 내력도 기술된다.



모두루총

### 모두루 일족에게 흐르는 고구려 역사

모두루의 묘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시대의 당대 기록 가운데 그 내용이 풍부한 편에 속한다. 글을 읽으면, 모두루의 행적은 물론 가계 기록과 고구려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먼저 가계 기록을 보면, 모두루의 집안은 멀리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동명성왕) 때부터 나라와 운명을 같이한 그야말로 유서 깊은 귀족이었다. 모두루의 시조랄 수 있는 먼 조상은 추모왕이 북부여를 떠나올 때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건국 사업에 일조했다고 한다.

모두루가 자랑스러워 한 또 다른 조상은 고국원왕 때 전연의 침공을 물리쳐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한 ‘염모’다. 국가의 운명을 건 일전 끝에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었고, 염모는 여기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모두루 일족은 북부여 경영의 중심을 맡게 되었으며,

모두루 자신도 '북부여수사'가 되어 고구려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두루 묘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일족의 역사뿐 아니라 고구려를 세운 시조 주몽의 건국신화부터 모두루가 모셨던 광개토왕과 장수왕까지 왕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역사의 일면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추모성왕을 '하백의 손자요, 일월의 아들'이라 적어 신성시하고, 이후의 왕들에게도 '국강상성태왕(고국원왕)',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광개토왕)' 등 '성왕(聖王)'의 호칭을 써 강력한 왕권을 시사하고 있다.

보호를 위해 내부 출입이 금지된 모두루총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왕조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어김없이 흘렸던 역사가 문득 위대하게 느껴진다. 거대한 유적이거나 휘황찬란한 유물이 있는 곳이 아니어도 역사는 어디서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칠성산 무덤떼는 국내성 서벽 쪽으로 통구하 건너편 칠성산 자락에 있다. 칠성산 무덤떼에서 왕릉급으로 추정되는 무덤은 칠성산 871호와 칠성산 211호이다.

칠성산 871호 무덤은 집안 지역의 왕릉 중에서도 국내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위치가 최상이라 할 만하다. 배충이 깔려 있고, 주변에 능을 관리하던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가 확인되기도 했다. 봉분에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 일찍이 많은 유물이 도굴된 것으로 보여 누구의 능인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 외에 발굴된 유물의 형태와 기법을 유추하면 2세기 말 이전의 왕릉인 것으로 보인다.

칠성산 211호는 칠성산 871호에서 왼쪽으로 1킬로미터쯤 가면 나온다. 칠성산 무덤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예전에는 민가로 둘러싸여 무덤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지만, 최근 묘역을 정비해 그

## 칠성산 무덤떼

## 전연의 침략과 국내성 함락, 극적인 반전

광개토왕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이가 고국원왕이다. 그가 왕이던 시절, 고구려는 새로운 강국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웃해 있던 적수도 만만치 않았다. 바로 전연이었다. 선비족 모용씨의 이나라는 건국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중원을 도모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신흥 세력이었다.

342년 전연의 5만 5천 군대가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침공해왔다. 이때 두 갈래의 경로가 있었는데,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인 북도였고, 다른 길은 좁고 험한 남도였다. 이 때문에 전연군의 애초 침공계획도 북도를 위주로 세워질 것이었다. 그러나 전연에서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던 모용한이 있어, 주 공격로를 남도로 하고 북도로는 일부 병력을 보내 고구려의 의표를 찌르고자 하였다.

고국원왕은 북도를 전연군의 주 공격로라고 예상하고 있었기에, 여기에 정예군 4만을 배치하였고 자신은 약졸을 거느리고 남도를 지키고 있었다. 허를 찔린 고구려군은 전연의 정예 4만 군대에게 패주할 수밖에 없었다.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전연군의 공격 앞에 왕도 국내성마저 무너졌고, 국왕은 단신으로 쫓겼다.

하지만 고구려는 절망적 파국을 헤치고 부활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북도에서 고구려군이 전연의 군대를 전멸시켜 전세를 원점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었다. 전연군의 본진은 북도에서 내려올 고구려군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전연군은 서둘러 퇴각하면서 이비하게도 고국원왕의 부왕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끌고 갔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를 볼모로 삼아 회군하였다.

북도에서의 극적인 반전은 전연에게 눈앞에 둔 승리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고구려에게는 패망의 기로에서 벗어나 소생의 기회를 주었다. 모두루의 묘지는 선조 염모가 바로 이 전투에서 공을 세웠음을 기록하고 있다. 북도 전투에서의 반전은 고구려를 기사화생케 하였고, 거기에서 거둔 염모의 공훈은 모두루의 일족이 대대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조상의 행적 이었던 것이다.

크기가 잘 가늠된다. 계단식 돌무지무덤 양식이고 북쪽에는 배총이었거나 혹은 제단으로 추측되는 유적이 있다. 계단의 축조방법이나 출토 유물을 보면 3세기 말 이전에 조성된 것이다. 이 무덤은 지금도 삼하게 파헤쳐진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도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비추어 무덤의 주인을 서천왕으로 보기도 한다. 《삼국사기》〈고구려 본기〉의 “봉상왕(재위 292~299) 5년 모용외가 고구려를 침범해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군사들을 시켜 파헤치게 했다.”라는 기록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덤의 주인은 서천왕이 되지만, 과연 그럴까. 혹은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졌던 시기, 포격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는 전언도 있다.

칠성산 211호 무덤



## 마선 무덤떼

철성산211호 무덤을 보고 난 뒤 단동 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가면 마선에 도착한다. 이곳은 국내성에서 그리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선하와 압록강이 만나 평지와 완만한 언덕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내세를 중시하던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 자리로는 적격이었을 법하다. 그래서인지 이곳 마선 무덤떼에는 우산하 무덤떼 다음으로 고구려 무덤들이 많다. 무덤의 규모가 왕릉급인 것만도 천추총과 서대묘, 마선 2100호, 마선 626호 등 모두 8기가 보고되었다.

마선2100호무덤



## 마선 2100호

무덤의 형태는 계단식 돌무지무덤. 원래는 7단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는 4단만 남아 있다. 무덤 주위에는 원래 담장이 둘러 있었던 흔적이 있다. 화려한 금제 장식품, 날아가는 새 모양이 새겨진 와당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천추총과 남북으로 근접해 있고 천추총의 유물과 비슷해 두 무덤의 주인공들이 밀접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추총의 주인으로 유력한 왕이 제18대 고국양왕(재위 384~390)이니, 그와 가장 가까운 17대 소수림왕의 무덤일 가능성도 있다.

## 천추총

천추총은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 천년만년 길이 견고하기를)’의 문구가 적힌 벽돌이 무덤 위에서 발견돼 이름 지어졌다. 무덤의 형식은 마선 2110호 무덤과 비슷한 계단을 갖춘 계단식 돌무지돌방무덤이다. 원래는 10단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5단만 남아 있다.

천추총



돌방에는 잘 다듬어진 석재를 사용했고, 부장품을 넣는 돌덧널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발굴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무덤의 양식이나 묘역 시설이 태왕릉과 매우 비슷해 무척 놀랐다고 한다.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이 천추만세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겠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월과 풍파 앞에 무너져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 서대묘

서대묘는 말 그대로 국내성 서쪽, 집안 지역의 무덤떼를 통틀어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무덤이다. 서대묘 앞에 이르면, 저 멀리 압록강이 단동 쪽으로 굽이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이곳이 바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천하명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서대묘는 무덤의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돌방이 있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서대묘는 무덤 가운데가 완전히 파헤쳐져 둘로 갈라졌다. 서대묘의 규모나 위치, 출토 유물의 형태, 훼손 정도로 보아 미천왕의 능으로 추측된다. 고국원왕 때 전연의 모용황이 침공해 궁실을 불태우고 왕모와 왕비를 비롯한 수많은 고구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천왕릉을 파헤쳐 시신을 훔쳐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서천왕의 경우도 그렇지만, 후대 왕들이 파헤쳐진 선대 왕의 묘를 훼손된 그대로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머슴에서 왕이 된 미천왕

미천왕은 죽어서 무덤이 훼손되고 시신이 강탈당하는 불운을 겪었지만, 살아서 왕이 되기 까지도 쉬운 길은 아니었다.

왕위에 오르기 전,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이었다. 을불은 고구려 14대 봉상왕의 아우 돌고의 아들이었는데, 봉상왕이 돌고를 역모로 몰아 죽이자 궁에서 도망쳐 나왔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손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할 처지가 된 을불은 신분을 속이고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다. 생전 처음 겪는 노동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주인은 몹시도 그를 부렸다. 잠시도 짬을 주지 않고 부리는 것도 모자라, 밤에는 주인의 단잠을 방해하는 연못의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도록 했다. 참다못한 을불은 소금장수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만만치는 않았다. 행상을 나갔다가 목은 집의 노파가 그를 도둑으로 문 것이었다. 쫓기는 신세라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는 볼기를 맞아야 했다. 을불의 귀티 흐르던 얼굴은 고생으로 파리해졌고, 남루한 차림새까지 더해져 왕자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7년이 흐르고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던 봉상왕은 결국 내물렸고, 은밀히 을불을 찾아낸 대신 창조리의 힘을 입어 왕위에 올랐다.

을불은 고구려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한창 혼란스러운 때에 왕이 되었다. 특히 중국 동북부에서는 선비 모용씨가 등장하여 고구려를 압박해 오던 중이었다.

왕위에 오른 을불, 미천왕은 수세로 일관했던 종래의 대응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이윽고 모용씨와의 관계는 반전되었다. 또한 내적으로도 백성들의 삶을 살폈다.

침체에 빠졌던 고구려는 미천왕에 의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혹독한 세상살이의 경험은 을불에게 험난한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안목을 키워주었고,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  
심양

고 구 려 를 찾 아 서

# 심양 沈陽

shenyang

## 1. 답사하기 전에

심양 한눈에 보기 | 심양 돌보기

## 2. 답사 떠나기 - 고구려의 문을 두드리다

요령성 박물관 · 심양 시내 유적지 · 백암성연주성 · 본계수동

### 심양 한눈에 보기

**역사** 청나라의 첫 수도, 병자호란과 관련이 깊다.

**위치** 중국 요령성의 성도

**기후** 온대 대륙성 기후, 계절풍의 영향이 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산업** 중공업 도시로 전기기계, 금속, 군사공업 발달

### 심양 돋보기

심양은 인구 750만이 넘는 중국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옛 이름은 봉천이었다. 중국 동북 삼성(三省)의 하나인 요령성의 성도로 동북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이 지방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양은 만주 지역의 요지에 자리한 만큼 오래전부터 주목받았고, 그래서 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다.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 한 때에는 요동군에 속했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거점으로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 가운데 심양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낸 것은 아마도 17세기 만주족의 수장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웠을 때일 것이다. 누르하치는 심양에 궁궐을 짓고 수도로 삼았다. 1644년 청이 명을 몰아낸 뒤에는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가기는 했어도 심양은 여전히 지배 왕조의 옛 수

도로 명성을 이어갔다. 청조 초기 황제들의 무덤과 고궁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적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심양은 우리 민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심양은 한때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기도 했고, 발해에 속하기도 했던 곳이다.

도착한 첫날은 바로 환인으로 이동하고, 답사를 끝낸 후 여건이 되는 대로 심양 시내를 둘러볼 것을 권한다.

심양시 동릉구 기반산 풍차구에 위치한 석대자산성



# 고구려의 문을 두드리다

## 요령성 박물관

요령성 박물관은 요하를 중심으로 과거 요동과 요서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러 세력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를테면 백화점 같은 박물관이다. 고구려뿐 아니라 연을 세운 선비 모용씨리든가 요나라의 거란 등이 지역에서 성장을 구가하다가 사라진 여러 세력들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고구려를 찾아온 우리로서는 고구려는 물론이고, 대대손손 우리 선조들과 때론 적으로 때로는 이웃으로 함께 했던 세력들의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수확인 것이다.

고구려는 중국 왕조와 선비 모용씨의 전시실을 지나서 배치되어 있는데, 막상 전시 코너에 이르고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 방금 전에 둘러보았던 선비 모용씨의 유물들이 그들의 문화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데 비해, 고구려 코너는 무언가 빠져 있고 어찌면 저들에 비해 낙후된 문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착오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실한 느낌을 준다. 관구점 기공비와 신성(고이산성) 출토의 투구, 그리고 오녀산성 출토의 유물 몇 점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심양의 한복판에서 고구려를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박물관 측의 전시 의도가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명멸했던 여러 세력 가운데 하나이며 그 문화수준도 증원에 비해 뒤떨어진 것임을 은연중에 보여주려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요령성 박물관



관구검 기공비



고구려 토기

짧은 목, 큰입이 바깥으로 벌어졌으며 배가 부른 형태의 항아리이다.



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투구



심양고궁



신라유적박물관

## 심양 고궁

심양에 가서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심양 고궁이다. 북경의 자금성 다음으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잘 보존되어 있어서 심양의 영광과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심양 고궁은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우고 황제에 오르면서 20년(1625~1636)에 걸쳐 완공했다고 한다. 3대 황제에 이르러 70여 채에 달하는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데,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이곳을 ‘봉천행궁’이라 부르며 제2의 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신락 유적 박물관

신락 유적 박물관은 1974년 발굴된 신석기 유적 박물관이다. 심양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으며, 석기 외에 독특한 모양을 가진 도기 등도 전시하고 있다. 약 7200여 년 전 신석기 시대 모계사회의 유적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생활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신석기 문명 박물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게 독특하다.

## 서탑 거리

심양에는 4개의 탑이 있다. 그중 서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변화가가 있는데, 그곳이 일명 ‘서탑 거리’로 불리는 심양 내의 코리아타운이다. 심양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과 조선족들의 생활터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평양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식당을 운영하러 나온 북한 사람들도 있다. 조선족 백화상점과 호텔들, 시장, 노래방, 식당 등 한글로 된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거리를 오가는 낮익은 얼굴들을 보노라면 한국의 여느 거리와 다를 바가 없다.

## 소현세자의 눈물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했다. 이른바 병자호란이다. 조선은 청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만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도모할 야심에 차 군사력을 키우던 청나라에게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황제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치욕'으로 항복했다. 그리고 인조의 아들들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비롯한 신하들이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소현세자 일행이 잡혀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심양이었다.

소현세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심양에 머물면서 한 가지 과제에 몰두했다.

“어찌하여 한 날 오랑캐라 여겼던 청이 명나라를 몰아내고 중원을 위협할 만큼 강성해질 수 있던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소현세자는 볼모의 신분이었지만 청나라의 고위 관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서양문물과 천주교를 접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고 조선의 살 길을 도모했다. 그리고 <심양일기>를 통해 당시의 기록도 상세하게 남겼다.

한편 삼전도의 치욕을 잊지 못하고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꾸던 인조는 청나라와 서슴없이 교류하고 청의 신임을 받는 소현세자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1645년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킨 후, 더 이상 후방의 위협에 대비한 볼모가 필요 없어진 청이 소현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냈지만, 인조는 세자를 멀리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왕에게 자신이 접한 서양 문물을 소개하고 새로운 나라를 꾸릴 희망에 차 있던 소현세자는 상심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소현세자가 머물며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던 심관(瀋館)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심양 고궁을 거닐면서 무언가 몽클한 마음이 든다면 한 나라의 대통을 이어받을 왕자로서 남의 나라에서 볼모로 잡혀와 남몰래 흘렸을 소현세자의 눈물 때문이 아닐까.

## 눈부시게 하얀 성

심양에서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환인으로 가는 길에 혹은 집안, 단동을 거쳐 답사의 마지막 길에 일정을 맞춰 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산성이 하나 있다. 고구려 때는 백암성이라고 불렀던 연주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심양 남쪽에 있는 등탑시 관둔촌 북쪽의 거대한 암반 위에 자리 잡은 연주성은 주변에 석회석 광석이 있어 성벽 전체가 눈부신 흰색이다. 그래서 이곳을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평정했을 때 쌓았던 백암성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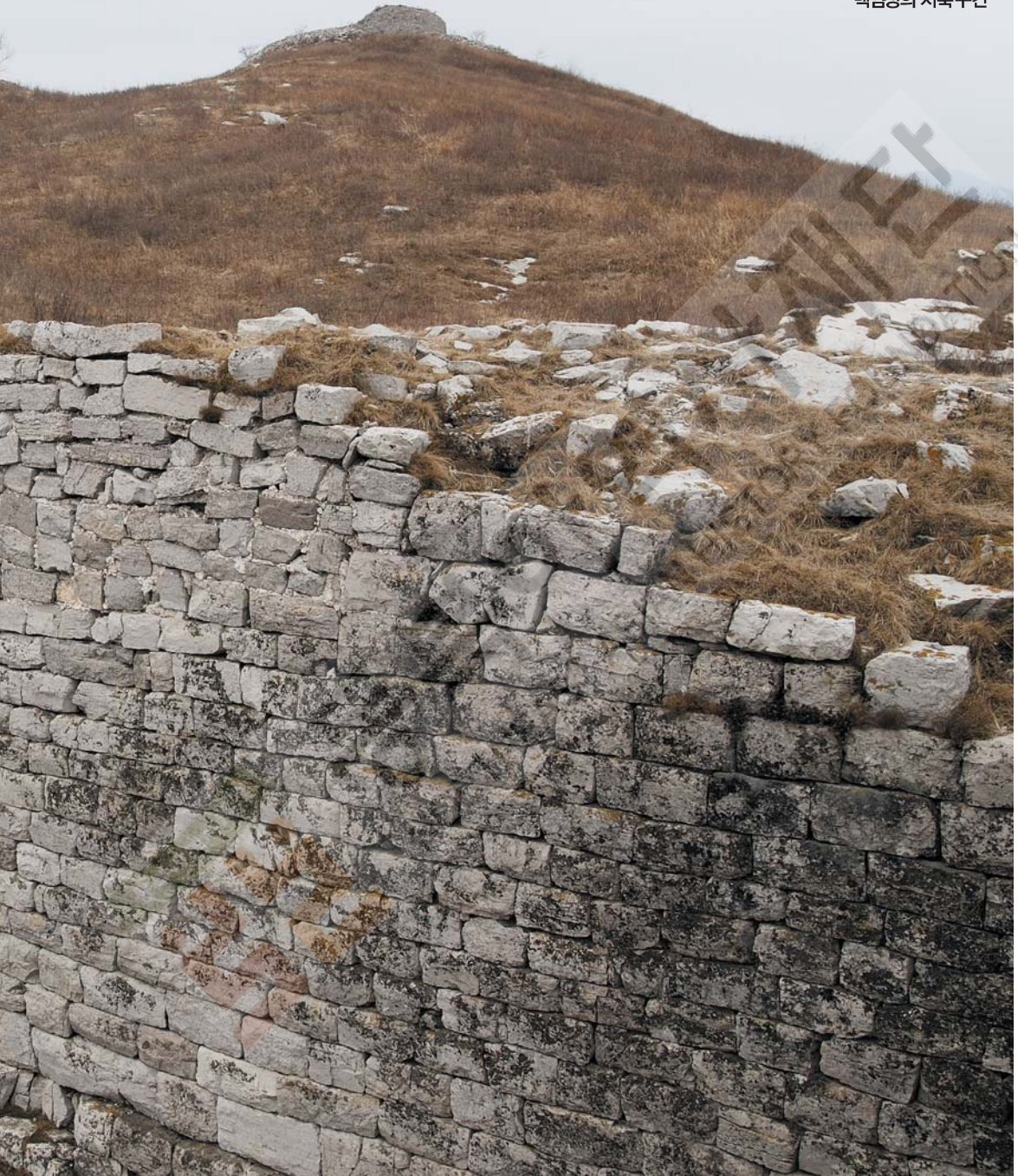
백암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처음 보인다. 547년 개축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547년에 고쳐 쌓았다니 당연히 이보다 앞서 쌓았을 것이다. 대략 5세기경 요동 전역을 확보한 고구려가 요동성을 서방 전선의 중추로 삼게 되면서 그 배후 거점으로 백암성을 세웠던 것으로

백암성  
(연주성)

동벽 구간과 태자하







추측하고 있다. 요동성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천산산맥을 넘어가는 길목에 있어 전략적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 백암성의 비극

이제 백암성을 천천히 둘러보자. 백암성은 동쪽이 높고 서쪽의 마을로 내려오면서 낮아지는 형상이다. 남쪽은 태자하(太子河)를 굽어보는 절벽이다. 아찔한 절벽의 하얀 석회석 바위와 굽어치는 강이 어우러진 절경이다.

백암성세 번째치



성벽은 능선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네모꼴을 하고 있지만 불규칙한 모습이다. 안팎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석벽이 시방으로 잘 남아 있다. 다만 군데군데 보이는 회 접착 부분은 고구려 당시의 것이 아니다. 후대에 내려와 보수한 흔적이다.

보통 사람의 눈에도 무언가 범상치 않은 느낌을 주는 성벽 바깥으로 돌출된 특이한 모양새의 벽은 '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치는 성벽에 접근한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견고하게 쌓은 성벽과 함께 백암성을 돋보이게 하는 구조물로 꼽힌다. 백암성에는 모두 다섯 곳의 치가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서북벽

쪽 세 곳은 거의 완벽한 모습을 자랑한다. 한편 치와 치 사이 중간 부분에 성벽 안쪽으로 석대를 쌓아올린 것은 아마도 성벽으로 오르는 계단 역할을 하면서 성벽을 안정감 있게 떠받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백암성의 성문은 어디였을까. 마을 쪽으로 평지까지 내려온 곳에 성문이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는 있는데, 아쉽게도 확실한 자취를 찾을 수는 없다. 다만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문비석이 마을 쪽 가옥의 벽으로 쓰이고 있어 대강의 위치를 짐작할 뿐이다.

백암성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 전쟁의 요새로 긴요하게 쓰였을 역사를 상상할 수 있지만, 백암성은 성벽의 위용과는 달리 치열한 공방전 없이 적에게 맥없이 함락된 씁쓸한 기억도 가지고 있다.

645년 당나라와 전쟁을 할 때의 일이다. 당나라군의 기세가 예상외로 강력하다는 전령의 소식을 들은 백암성의 성주는 당황했다.

“요동성이 함락되었단 말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천하의 난공불락인 요동성이 함락되었다면, 요동성보다 규모가 작은 백암성이 과연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나라군의 기세가 등등하다고는 하나 우리에게는 오골성 등지에서 달려온 구원병이 있으니 해볼 만합니다.”

부하 장수가 성주에게 고했으나 이미 겁을 먹은 성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성주는 몰래 당군과 내통하여 백암성 문을 열어주었고, 백암성 안의 1만여 고구려 백성이 당나라의 포로가 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나라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연주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백암성을 돌아 나오는 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그래도 뒤돌아본 백암성은 이름답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성의 견고함이 요동으로 세력을 뻗친 고구려의 기상을 전해주기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본계수동

요령성 본계시 동쪽 교외에 있는 본계수동은 환인으로 들고 나는 길로, 편안한 마음으로 유적 답사의 긴장감을 풀고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다. 게다가 현지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석회암 동굴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니, 그냥 지나친다면 섭섭할 듯도 하다.

본계수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위의 산들과 다를 바 없는데, 입구에 가까이 가면 직경이 20미터에 달하다는 동굴이 '쩍' 하고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다. 이름 그대로 물동굴(水洞)이어서, 본계수동은 입구에서 보트를 타고 유람을 시작한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지하 암하의 길이는 5,800미터. 현재 개방된 수중동굴은 2,800미터에 이른다. 보트 밑을 내



러다보면 평균 수심이 얇게는 1.5미터에서 깊게는 7미터에 이르는 곳도 있다니 아찔하다. 고개를 들어 여러 가지 색등으로 밝힌 동굴 위를 보자면 은하수를 건너는 듯 별세계에 온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수십 척의 배가 오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동굴 속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두운 곳에서 살다 보니 모두 눈이 멀었다고 한다.

사시사철 10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돼 봄 날씨 같지만, 동굴을 모두 돌아 나오려면 쌀쌀한 기운이 든다. 본계수동을 여정에 넣었다면 걸옷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겠다.

백암성의전경  
(서→동)







단동

고 구 려 를 찾 아 서

# 단동 丹東

dandong

## 1. 답사하기 전에

단동 한눈에 보기 | 단동 돌보기

## 2. 답사 떠나기 - 대륙과 연결되는 해로와 육로의 길목

박작성(호산산성) · 애하첨고성 · 오골성(봉황산성)

# D1

## 답사하기 전에

### 단동 한눈에 보기

역사 고대로부터 한반도와 만주, 중국을 잇는 길목

위치 중국 요령성 남부. 압록강에 면해 북한의신의주와 마주보고 있음

면적 830km<sup>2</sup>

인구 56만 명

\* 중국 최대의변경 도시



## 단둥 돌보기

단둥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붉은 도시라는 뜻이다. 옛 이름은 안둥이며, 단둥으로는 1965년에 바뀌었다. 압록강 하구부의 신의주 바로 맞은 편에 있어 신의주와는 철교로 연결된다.

고대로부터 한반도와 만주, 중국을 잇는 길목이어서, 역사상 한중 관계의 많은 사건들이 단둥에서 벌어졌다. 고구려가 조위(曹魏)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공략했던 서안평(西安平)이 단둥에 있었으며,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선을 뒤흔들기 위한 당군의 기습도 이곳에 가해졌던 것이다. 발해가 들어선 뒤에는 발해와 당의 사절이 이곳을 경유하였다. 또한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 있는 위화도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의 첫 걸음을 내디딘 곳이기도 하다.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통로로 발전하였다. 다리 건너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북한 땅을 비라만 보아야 하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 대륙과 연결되는 해로와 육로의 길목

## 박작성 (호산산성)

현재 단둥시의 주요 관광명소인 호산산성은 중국 측에서 만리장성의 끝단으로 복원했지만, 본래 고구려가 쌓은 성이 있던 곳이다. 당시 이름은 박작성이다.

호산산성은 서안평성이라고 추정되는 애하첨고성에서 동북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애하와 압록강이 만나는 지점에 돌출한 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했을 때, 서안평성은 평지성으로 박작성은 산성으로 짝을 지어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작성의 강 건너편은 의주이고, 그 뒤쪽의 평양성으로 이어지던 주요 교통로에 고구려가 쌓았던 백마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 성은 명나라 장성의 동쪽 끝단으로 알려져 조사되었다가 고구려 성벽을 하단부에서 발견했다. 고구려의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박작성



있는 곳도 있었으나, 지금은 초라하게 남아 있다. 이 밖에도 고구려 당시의 우물터가 발견되었다. 현재는 중국이 복원한 장성 옆 역사 박물관의 왼편에서 그 모습을 간신히 찾아볼 수 있다.

본래의 박작성은 2개의 산봉우리와 그 정상 부분을 둘러싼 작은 산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작지만, 압록강 하구로부터 들어오는 적군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당나라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648년, 압록강 하구로 침입한 당의 수로군에 의해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은 배후에서 위협받게 되었다. 이때 침공군의 앞을 가로막은 곳이 바로 박작성이었다. 박작성이 적의 진출을 저지하는 사이, 오골성 등지에서 보내온 증원군이 도착하여 적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동시 동쪽으로 애하가 압록강에 합류하는 지점의 애하첨촌에는 애하첨고성으로 불리는 토성이 하나 있다. 동서 500미터, 남북 600미터 길이의 성벽을 흙으로 다져가며 쌓은 성이다. 이 성은 2세기 고구려의 공격으로 잘 알려진 요동군 서안평현성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서안평성을 둘러싸고 위나라와 충돌하였다. 그리고 침공한 위나라군에게 수도 국내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4세기 초반에 이르면 서안평은 확실히 고구려의 차지가 되었고, 토성은 그대로 고구려의 평지성으로 활용되었다. 서안평성터 여기저기에 흩어진 고구려 기와의 조각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당나라가 침공에 앞서 고구려의 내정을 탐지하기 위해 보낸 사신 진대덕이 쓴 《고려기》에서 이 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 말기까지 서안평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애하첨 고성

압록강의 뗏배





MISSISSIPPI

NORTHEAST ASIAN HERITAGE FOUNDATION

OLGA KATYLLER FOUNDATION

## 오골성 (봉황산성)

\*출입불가

단동에서 심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봉성시 동남쪽 봉황산과 고려산의 능선이 만들어낸 넓은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다. 둘레가 15킬로미터에 달하는 요동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이다. 현지에서는 봉황산성이라고 부르지만, 고구려의 오골성으로 추정된다.

오골성은 험준한 절벽을 이용하면서도 산등성이를 따라 잘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아올렸다. 봉황산과 고려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성벽이 남쪽에서 평지로 만나는데 이곳에 남문터가 있다. 남문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옹성의 모습이 거대한 토벽으로 남아 있고, 그 정면에는 예부터 이용된 도로가 지난다. 오골성은 요동 방면과 왕도 평양성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있고, 서쪽으로는 건안성과 안시성 등 요하 방어선의 주요 요새들과 연계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했던 것이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전 보낸 밀정 진대덕의 《고려기》에는 오골성을 ‘고구려 성 가운데 추요지처(樞要之處)’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오골성은 한반도에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는 길로 이용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연행록》에 이 성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북문터는 산성의 동북부, 봉황산과 고려산을 연결하는 능선이 움푹 꺼져 협곡을 이룬 곳에 있다. 그 좌우 능선으로 정연하게 쌓아올린 성벽이 잘 남아 있다. 북문의 왼편으로 장대로 여겨지는 시설물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 서면 성 안은 물론 멀리 남문 일대까지 조망할 수 있다. 성 안에 넓게 펼쳐진 평지의 동쪽 편에서 건물터가 많이 발견되었다.

현재는 성 안에 마을과 경작지가 있고,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군부대가 성 위에 있어 사전에 답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압록강과 고구려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선처럼 느껴지는 압록강. 그래서인지 압록강을 떠올리면 왠지 절절한 사연이 배어날 것 같다. 실제 일제 시대에는 조선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한국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만주로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강을 건넜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넘나들며 활동했다. 지금은 중국 땅에서 마음대로 건널 수 없는 북한을 가로지르는 벽이 되었다.

함경남도 일원에서 발원해 서남쪽으로 흘러 집안을 지나고 단동을 지나 황해로 나아가는 압록강은 예부터 한반도 서북부와 요동을 잇고,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집안이 압록강 중류에 자리 잡고 있고, 요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서안평성이 압록강 하구인 단동에 위치한 것을 보면, 고구려에서 압록강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압록강 하구를 이용해 고구려는 대륙과의 교류를 다각도로 전개하였다. 육로로 이어지는 북중국 방면과 달리, 남중국과의 교통은 황해를 통해 이루어졌다. 압록강 하구가 고구려의 해상교류 창구였음은 고구려와 오나라 간의 교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구려 말기에 이르면 압록강은 요동 방어선을 무너뜨린 당나라 군대의 남진을 가로막는 천혜의 방어선이기도 하였다. 훗날 발해와 당 사이의 외교에서도 압록강은 해상 통로로서 중시되었다.





이하첨고성과박작성





동북  
NORTHEAST ASIA

제2부

고구려의 성(城)을  
찾아서

동북아시아재단

5.20

동북

동북아시아학술원  
NORTHEAST ASIAN STUDY FOUNDATION

고구려는 성(城)의 나라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처럼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름은 '구루=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구려는 건국 이래 곳곳에 튼튼한 성곽을 쌓아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각지의 성을 거점으로 삼아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해 나갔다. 고구려인들이 쌓은 성곽이 얼마나 견고하였던지, 당나라 관리조차 “고구려는 산에 의지해 성을 잘 쌓았기 때문에 쉽게 함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당 태종은 고구려 정벌을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했지만, 안시성의 뒷에 걸려 눈물을 머금고 퇴각하였으며, 죽을 때 “고구려 정벌을 중지하라.”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래서 고구려 유적을 답사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성곽 유적이다. 성곽문화는 성곽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고구려의 지방 통치와 영역 지배의 양상을 보여주어 더욱 가치가 높다.

고구려 성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중국 내에 대략 170개, 북한 내에 40여 개, 남한의 임진강과 한강 유역 일대에 소형 성곽과 보루 수십 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성곽을 제외하더라도 고구려 성은 무려 200여 개를 훌쩍 넘는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권력 다툼에 의한 내분으로 고구려가 스스로 약화되지만 않았어도 고구려는 좀 더 오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아 있는 고구려 성들의 견고한 성벽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치밀한 축성술이 이를 말해 준다.

고구려 성의 답사는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닌 좁고 불편한 시골길과 산을 타고 오르내려야 하는 고달픈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환인과 집안에서 흡승골성과 국내성 등을 답사해 고구려에 대한 이해의 소중한 첫걸음을 뗀 사람이라면, 고구려 성 답사가 고구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석대지산성 · 최진보산성  
· 신성 · 청룡산성

요동성  
· 안시성  
건안성 · 낭랑산성  
· 성산산성  
· 우패산성  
· 비사성  
· 득리사산성

고 구 려 를 찾 아 서

# 고구려 천리장성

## 1. 답사하기 전에

고구려 천리장성 돌보기

## 2 답사 떠나기 - 성의 나라, 고구려!

비사성 · 우패산성 · 성산산성 · 득리사산성 · 건안성 · 낭랑산성 · 안시성 · 요동성 · 석대지산성 · 신성 · 청룡산성 · 최진보산성

### 고구려 천리장성 돋보기

고구려에게 성이란 침공해 오는 적을 방어하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군사시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에 맞추어 산성을 많이 쌓았던 고구려에게 성은 방어 목적의 군사시설인 동시에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보호망이며, 지방 곳곳을 통치하는 행정 중심지로서 드넓은 영토의 효율적 지배를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올리고 튼튼하게 쌓았다고 하더라도 성곽 하나가

비사성



가진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구려인들은 성곽을 견고하게 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 성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였다. 성 하나가 홀로 적의 공격에 맞서지 않고, 여럿의 힘으로써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방어망을 여러 겹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만주 지역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성을 주축으로 생각하면, 고구려는 요동에서 수도까지 이어지는 교통로에 따라 요동 반도 남단에서 북쪽 길림까지 이어지는 국경 지대의 방어성, 요동에서 도성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 구축된 중간 방어성, 그리고 도성을 둘러싼 최종 방어성으로 다중의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쉽지 않은 여건을 딛고 답사하고자 하는 이른바 고구려의 '천 리장성' 코스는 그 다중 방어 체계 중에서도 요동 반도 남단에서 북쪽까지 이어진 국경지대의 요충지에 구축된 성들을 말한다.

요동 반도 끝에서 북쪽으로 고구려의 성을 따라 천 리를 가는 길, 요충지 곳곳에 구축된 성들을 둘러보면서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그려보자.

# 성의 나라, 고구려!

## 비사성

요동 반도의 끝자락,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기암절벽 위에 올라선 성. 그곳이 바로 요령성 대련시 대흑산에 자리 잡은 비사성이다. 현지에서는 비사성이 위치한 대흑산의 이름을 따서 대흑산산성이라고 부른다.

비사성은 해발 663미터의 대흑산 정상부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따라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성의 둘레는 5킬로미터에 이르고, 능선을 따라 돌로 쌓아 만들었다. 성의 동쪽 구간에는 고구려 당시의 성벽이 남아 있고, 환도산성과 고검지산성 등지에서 보이는 기둥구멍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당 측의 기록은 비사성 공격에

비사성의 남쪽 벽에서 바라본 발해만



앞서 “(비사성의) 네 면은 경사가 급하고 오직 서문으로만 오를 수 있다.”라고 전하였는데, 실제 답사를 가보면 비사성이 올라앉은 산의 경사가 급하고 능선이 높아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래도 지금은 비사성의 유일한 출입구인 서문까지 도로가 나 있어 절벽 위의 장대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도중에 보이는 성벽과 장대 건물은 최근에 새로 쌓은 것이다.

장대 위에 서면 서쪽으로는 발해만이, 오른쪽으로는 황해가 모두 굽어 보인다. 무심한 자에게는 아찔한 절벽 아래 펼쳐진 풍경이 그저 아름다운 장관이지만, 바다를 통해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적을 감시하던 고구려 장수에겐 파를 말리는 전장이었을 것이다.

비사성은 요동 반도 연안로를 이용한 해상교통을 장악하는 데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에 이곳이 무너지면 적에게 서해안을 경유하여 대

비사성의 남쪽구간



동강을 거슬러 평양성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그래서 비사성에서는 대륙을 건너온 적이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맹공을 펼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곤 했다. 수나라·당나라와의 대전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645년의 전쟁에서는 당나라 군대의 야간 기습에 성이 함락되는 불운을 겪었는데, 산세가 워낙 험한데다 한밤중에 당한 일이라 도망치기 어려웠던 까닭으로 보인다. 성 안에 있던 8,000여 명의 고구려인이 전몰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대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당왕전(석고사)이 있다. 당 태종이 이곳까지 와서 병을 치료하고 군대를 지휘한 것을 기념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당 태종이 직접 비사성에 왔던 일이 없었으니 후대에 과장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산성에 올라 성벽 위를 걸다 보면 성가퀴의 바로 안쪽으로 네 모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무얼까 하는 호기심에 주위를 둘러보면,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만들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구멍은 성벽이 파괴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둥구멍(柱洞, 石洞, 方孔, 方坑)이라고 불리는 고구려 산성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시설이다. 기둥구멍은 성벽의 밑바닥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데, 본래는 나무기둥이 세워져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무기둥은 사라지고 구멍만 남은 것이다.

이 기둥구멍의 용도는 무엇이며, 나무기둥에는 무엇이 거치되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성벽 위에 목책이나 방어를 위한 나무판을 세우거나 성벽 바깥으로 바위와 통나무를 떨어뜨려 적병을 살상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를 거치했다고도 생각된다. 혹은 쇠뇌를 성벽 위에 거치하기 위해 필요했다거나 성벽의 축조와 관련이 있는 시설물로 보기도 한다.



흑구산성 기둥구멍



오녀산성 기둥구멍



당포성 동벽  
기둥구멍

## 고구려는 왜 산성을 쌓았을까?

고구려의 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도 200여 개가 넘는다. 국내성이나 요동성 같은 평지 성도 있고 평양의 장안성 같이 평지성과 산성의 혼합형인 평산성의 유형도 보이지만, 고구려의 성은 산 위에 혹은 산의 형세를 이용해 만든 산성이 대부분이다. 왜 고구려인들은 산성을 쌓은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구려가 본래 산이 많은 지역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첫 수도였던 졸본이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 지역 모두 산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개국 초기 세력이 미약할 때 외부 세력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산에 의지해 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로써 산성이 가진 장점을 체득하면서 산성 쌓기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산성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 적의 움직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수적으로 적이 우세하더라도 적은 병력으로 쉽게 막아낼 수 있었다. 즉 잘 쌓은 산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다.

실제로 수·당과 같은 거대 국가와 맞서서도 고구려의 산성 방어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다. 고구려는 일부 성을 내주어도 겹겹이 구축된 방어성들이 버텨 결국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군사상의 목적으로만 산성을 쌓은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주로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이 컸지만, 고구려의 영토가 확대되고 고대 국가로서의 틀이 잡혀가면서는 산성을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성 안에 관청을 두는 한편 주민들도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초기에 구축된 산성들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데 비해 후기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형태로 발전했다.

한편 기둥구멍은 고구려의 초기 산성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알려졌다. 집안과 환인 지역의 산성에서 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 초기의 중심지를 벗어난 지역인 요동 지방과 서풍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돌로 쌓은 고구려 산성의 성벽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시설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임진강변의 당포성에서는 기둥구멍의 하단부에 흠이 파진 돌확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기둥구멍이 발견된 고구려 성은 모두 15곳이다. 홀승골성(오녀산성), 환도산성, 산성자산성, 패왕조산성, 고검지산성, 흑구산성, 비사성(대흑산성), 서풍 성자산성, 최진보산성, 관전 고령성, 오골성(봉황산성), 낭랑산성, 건안성(고려성자산성), 득리사산성, 위패산성, 당포성 등이다.

위패산성은 요령성 보란점시 북쪽에 자리 잡은 산에 위치해 있다. 벽류하의 지류 연안에 해당하는 곳이다. 위패산성은 명나라 시절의 명칭이며, 현지에서는 오씨 성을 가진 여인의 수행 일화에서 따와 오고성(吳姑城)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구려 당시의 명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의 규모와 성벽을 쌓아 올린 공력으로 미루어 벽류하의 동쪽에 축조된 성산산성과 함께 건안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자리 잡았던 고구려의 주요 성곽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산등성이를 따라 잘 다듬은 청색의 화강암으로 쌓아 만들었다. 위패산성도 비사성처럼 둘레 길이가 5킬로미터에 달하는 대형 산성에 속한다. 현재 동쪽과 북쪽 성벽의 보존 상태가 좋아 성의 구조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북문에서는 문을 보호하기 위해 반원형으로 감싼 옹성 구조가 확연하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아예 작은 성곽이 별도로 세

## 위패산성

## 고구려 성의 구조

고구려 성은 지세에 맞는 성벽과 성문, 장대, 치와 성가퀴, 수원시설, 수구문과 배수구, 기타 건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 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 보여준 뛰어난 고구려 성의 방어력은 견고한 성벽을 쌓는 축성법과 더불어 바로 이러한 고구려 성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우선 성문을 보자. 성문은 외부와의 통로이므로 적의 공격이 집중되기 쉽다. 그래서 고구려는 성문 주위의 성벽을 특히 높고 견고하게 구축했다. 또한 성문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문 주위의 성벽을 어긋나게 쌓기도 했다. 또 성문 주위의 성벽을 U자형으로 들어쌓기도 하고, 성문 주위에는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한 돌출시설인 '치'를 두어 방어력을 높이기도 했다. 성가퀴는 성벽 위에 아군이 몸을 숨기고 적을 향해 활을 쏘거나 공격하던 시설이다.

장대는 장수의 전투 지휘소로 성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나 정문 근처에 설치되며, 성벽 곳곳의 전망이 좋은 곳에는 성 밖을 감시하는 초소인 망대를 설치했다. 때로 성의 가장 높은 곳에는 봉화대를 설치했으며, 장대와 망대 근처에서는 군사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가 발견되곤 한다.

산 위에 자리한 산성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안정적 공급인데, 고구려 산성의 경우 수량이 풍부한 계곡을 끼고 있거나 저수지와 우물, 혹은 빗물 저장시설이 빠짐없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성벽이나 성문 아래 성 안의 물을 내보내기 위한 배수구가 설치되었다.

대형 산성의 경우 관청이나 일부 주민들의 일상적 거주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었다. 산성이기 때문에 완만한 산비탈의 경사면을 깎아 계단 형태의 대지를 조성해 건물을 축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위패산성의 동쪽벽

위져 이중 구조의 성벽을 가지고 있다. 장수의 지휘소인 장대는 성의 서남쪽에 있는데, 다각면의 구조를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서문 안쪽에는 저수지가 있고, 우물도 성 안에 세워진 도교 사원의 뜰 앞에 남아 있다. 고구려 당시의 기와 조각도 발견돼 사람이 거주했던 건물 흔적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 반도 끝, 바다를 지키던 요새 비사성에서 동쪽으로 올라와 보란 점시의 위패산성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반도를 따라 장하시에 이르면 고구려 당시 석성(石城)일 가능성이 있는 성산산성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일컫는 성산산성이라는 이름은 산성이 위치한 성산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성산산성은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벽류하의 동쪽 연안에 세워졌는데, 강을 따라 오르면 고구려 천리장성의 주요 거점성인 건안성이 있는 개

## 성산산성

성산산성의  
남사벽을 이루는 구간





주로 연결된다. 그래서 성산산성은 요동의 방어선이 미처 차단하지 못한 적군이 동남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요동 반도 남단에 상륙한 적의 진출을 가로막던 요새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산산성은 고구려가 쌓은 성벽의 모습이 잘 남아 있는 성 가운데 하나이며, 성 안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남아 마치 고구려 성의 백화점 같다. 또한 성산산성은 해발 290미터의 성산 주봉을 중심으로 신등성이를 따라 화강암의 성벽을 두르고 있다. 성의 둘레는 2,989미터에 이르며, 특이하게 벽류하의 지류인 협하를 사이에 두고 성의 둘레가 4킬로미터인 후성산산성과 마주보고 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남문이 있었던 자리를 거쳐 남아 있는 성벽을 바라보며 정상부로 오르면 치와 성루(城樓)가 없는 암문을 만나고, 곧 정상

성산산성 서벽의 모습



에서 장대로 추정되는 석대 시설을 만난다. 최근에 성벽 보수 작업과 함께 장대도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친 상태로 고구려 당시의 모습은 아니다. 또 성주나 장수가 거처했던 곳으로, 현재 성산산성에서 볼 수 있는 내성(內城)은 연개소문이 축조하고 지냈다는 일설도 있지만, 후대의 것으로 추측된다.

성벽은 남쪽과 협곡과 면한 낭떠러지인 서북쪽에도 잘 남아 있다. 그리고 깃발을 세워두던 석대와 돌로 만든 단도 남아 있다. 단의 경우 제단이라고도 하지만 확실치 않다. 성의 중간, 사찰 바로 아래에 잘 다듬은 돌로 차곡차곡 쌓아 만든 저수시설도 눈여겨 볼만하다.

다만 중국에서 보수와 개축을 거쳐 관광지로 개발한 상태여서 점점 고구려 당시 산성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리사산성은 요동 반도 남단의 비사성에서 반도의 서쪽을 따라 건안성까지 이어진 방어선의 중간 지점인 요령성 외방점시 북쪽 특리사향 용담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산성을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관련 기록에서 보이는 적리성(積利城) 혹은 석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특리사산성이 요동 반도 서쪽 해안에 근접해 있어 바다를 이용해 침입하는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요새이고, 요동 반도의 주요 거점성인 비사성과 건안성의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한 고구려 성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산성은 해발 444미터의 북쪽 봉우리와 그보다 낮은 남쪽 봉우리가 이룬 산줄기를 따라 성벽을 둘렀다. 산의 모양새에 따라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은 형태를 띤다. 산성의 총 둘레 길이는 2,240미터. 다른 고구려의 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산성도 산 능선을 따라 잘 다듬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성벽으로 이어진다. 아찔한 절벽 위의 암반에도 성벽의 자

## 특리사 산성

취가 남아 있다.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동쪽과 서쪽 구간이다. 남북 구간도 일부 끊어진 곳이 있긴 해도 성벽의 상태는 양호하다.

성의 답사는 산 아래에서 차도로 연결되는 동문터에서 시작된다. 동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대형 저수지를 만나게 되는데, 벽은 돌을 고구려 양식으로 정연하게 쌓아 올렸다. 저수지의 이름이 '용담(龍潭)' 이어서, 이 산성을 용담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저수지 옆에는 도교사원이 있다. 사원이 있는 곳은 성 안에서 가장 평탄한 지대여서, 고구려 시대에도 이곳에 주요 건물이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원을 지나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성의 반대편 서문터에 이른다. 서문터는 북쪽 능선에서 내려온 성벽이 남쪽 능선에서 올라온 성벽을 반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용성 구조를 보인다. 적이 절벽을 따라 이루어진 성벽을 넘기 어려웠으므로, 문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용성으로 둘러싸 문을 보호했던 것이다.

특리사산성의전경



## 고구려 산성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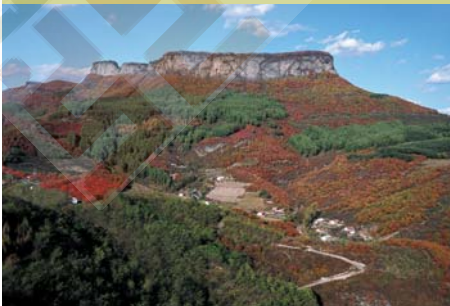
고구려의 성은 성이 들어선 곳의 조건에 따라 평지성과 산성, 둘이 혼합된 평양의 장안성 같은 평산성으로 나뉜다. 고구려 성에서 평지성은 드문 편인데, 주민들이 집중된 도성 지역에 주로 평지성이 존재한다. 지방성으로 평지성인 경우는 요동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 산성이다. 즉 고구려의 지방통치 단위인 성은 구체적으로 산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산성의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산성은 성곽이 위치한 지세에 따라 포곡식(包谷式) 산성과 산정식(山頂式) 산성, 그리고 그 둘을 혼합한 복합식 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포곡식 산성은 계곡을 끼고 주위의 산능선에 성곽을 축조한 형태로 대형 산성의 경우 이러한 지세를 이용한다. 포곡식 산성은 성 안에 넓은 평탄지를 확보하고 있어 병력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거주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었다.

산정식 산성은 산 정상부의 평탄면을 이용하여 주위에 성곽을 두른 형태로, 집안과 환인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초기 산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흙승골성을 비롯해서 흑구산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포곡식 산성(환도산성)



산정식 산성(오녀산성)



복합식 산성(나릉산성)

## 건안성

\*출입불가

남벽 정상부에 오르면 득리사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고구려의 병사는 이곳에서 행여 적이 고구려의 땅을 넘어오지는 않을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을 것이며, 고구려의 장수는 침공해온 적을 쳐부수기 위해 적의 움직임을 낱날이 살폈으리라. 비사성을 함락시키고 기세등등하게 이곳으로 달려왔을 당나라 군대를 맞은 고구려 장수의 비장한 마음을 그려보는 것도 옛 산성을 찾은 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요동 반도의 끝, 비사성에서 시작된 고구려 천리장성의 여정은 위패산성과 성산산성이라는 든든한 배후성을 두고 득리사산성을 거쳐 이제 요동 반도와 내륙의 요지에 자리한 건안성에 이른다. 안시성, 요동성과 연계해 고구려의 국경선을 지키는 첩벽방어선이었던 건안성은 개주시 청석령향 고려성지촌의 석성산에 자리 잡고 있다. 현지에서는 고려성자산성 혹은 청석관산성이라 불리고 있다.

건안성 서북벽에서 바라본  
성안의 모습



건안성은 계곡을 끼고 주위 산 능선에 성곽을 쌓은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이다. 전체 둘레가 약 5킬로미터에 이르고, 서쪽 골짜기 입구를 제외하면 사방이 산등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골짜기 입구의 남쪽과 북쪽에서 노청산, 노경산이라 부르는 두 산에서 길게 뻗은 산줄기가 타원형을 이루면서 산성을 감싼 형세를 이룬다. 산성의 내부에는 평탄한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요하 지역의 고구려 산성 가운데 가장 넓은 편에 속한다.

성 안 중앙에는 금전산이라는 아담하고 작은 산이 있다. 그곳에서 건물터와 지붕에 올랐던 기와조각이 발견돼 장대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금전산에 오르면 성 내부와 성벽을 쌓은 산등성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멀리 요동만까지 보여 적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장대로써 맞춤임을 알 수 있다.

산등성이의 성벽들은 많이 무너져 있지만, 대형산성인 만큼 돌을 가지런히 쌓아올린 석축, 흙으로 두텁게 쌓아올린 토벽, 수직 절벽을 이용한 천연 성벽, 흙과 돌을 섞어 쌓은 토석혼축의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성벽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문인 서문은 남쪽과 북쪽에서 내려온 성벽이 나란히 교차되도록 만든 뒤에 그 사이에 문길을 내고 성벽과 수직방향으로 성문을 낸 Z자형 옹문의 형태를 보인다.

645년 고구려를 침략했던 당태종이 “건안성을 얻으면 안시성은 내 손아귀에 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할 만큼 안시성과 요동성으로 이어지는 요동 방어선에서 주축이었던 건안성. 그러나 산등성이에 서서 성 안을 바라보면 참으로 이룩한 느낌을 준다. 참고로 건안성은 최근에 답사가 거부된 적이 있으므로, 답사 계획을 짤 때 미리 현지 상황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낭랑산성

\*출입불가

고구려를 침략한 적들이 요동 평원에서 천리장성의 주요 거점성인 안시성을 넘으면 평양성으로 향하는 교통로 상의 핵심 요새인 오골성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오골성이 함락되면 적들이 압록강을 넘어 평양성까지 진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안시성의 배후가 되며 오골성의 전면에 해당하는 곳에 성들을 배치해 철벽 방어망을 구축했다. 20여 개에 달하는 이 방어성들 가운데 중심이 된 산성이 바로 요령성 수암현 낭랑산성에 자리 잡은 낭랑산성이다. 성의 명칭은 청나라 시절 성 안에 세워진 낭랑묘에서 유래했는데, 이 성을 고구려 당시의 적리성으로 보는 견해도 일부 있다.

산성의 서쪽과 남쪽은 산등성이에 의지하고 동쪽과 북쪽으로는 대양하를 바라보고 있다. 대양하의 연안로가 바로 안시성과 연결되는 통로이다. 청나라 이전에는 황해로부터 대양하를 따라 수암현까지 배를 타고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아도 낭랑산성은 요동 방면에서 천산산맥을 거쳐 압록강 일대로 들어올 수 있는 주요 길목의 하나를 장악했던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등성이를 따라 돌을 쌓은 낭랑산성 성벽의 둘레 길이는 3.5킬로미터이며, 안쪽의 성을 2킬로미터 남짓한 바깥 성이 반원형으로 둘러싼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다른 고구려의 성벽처럼 성벽의 안팎은 다듬은 성돌로 쌓아올렸고, 벽체의 속을 채운 켜기꼴의 성돌이 안팎의 성돌과 단단하게 맞물려 있다. 지금은 겉면의 성돌은 거의 빠지고, 삐죽삐죽한 켜기꼴의 돌만이 성벽을 지키고 있다. 동남쪽 성벽에서는 세 곳의 대형 치가 남아 있고, 봉화대도 있다.

한편 동서남북 모두 성문터가 남아 있다. 정문은 계곡의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동벽의 문터인데, 이곳에서 성 안의 물을 바깥으로 내는 수문의 흔적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도 외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라 실제로 답사하기란 쉽지 않다.

낭령산성 전경



## 안시성

\*출입불가

“고구려 정벌을 그만 거두도록 하라!”

광활한 중국 대륙을 흔들던 천하의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죽기 전에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645년 고구려를 침략해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기세등등했으나, 안시성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돌아서며 얻은 뼈아픈 교훈 때문이었다.

여러 성이 함락되면서 전세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음에도 고구려인의 참다운 기상을 보여주며 끝까지 지켜냈던 안시성! 건안성의 동북쪽 해성시 영성자촌에 있어 영성자산성이라고 불리는 산성이 안시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산성의 서쪽으로는 사철하가 흐르고, 그 너머로는 요동평원이 펼쳐져 있다.

안시성은 흙을 다져서 쌓은 토성이다. 성의 둘레 길이는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 2.7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까지 차이를 보인다. 성은 서쪽에

안시성



있는 골짜기를 기준으로 산세에 따라 등성이가 둘러싼 형상인데, 성의 바깥은 가파른 산비탈이고 안쪽은 완만한 경사지가 펼쳐져 있다. 토성이라 멀리서 보면 자연능선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 여러 토축법을 이용해 쌓은 토성임이 확연하다.

현재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이 서문터인데, 그곳이 안시성의 정문이다. 남쪽과 북쪽에서 내려온 산등성이가 성문을 감싸는 형세인 U자형 용성 구조다. 서벽에는 서문과 수구문터를 중심으로 100미터에 이르는 길이를 진흙과 모래흙을 번갈아가면서 일정한 두께로 다져 쌓는 판축법(版築法)으로 두텁게 구축했다.

감시초소인 망대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귀퉁이에 세워졌다. 서북쪽의 망대는 성 안과 서벽 바깥쪽을 내려다 볼 수 있고 고구려 기와조각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장수의 지휘소인 장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벽과 서벽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토산이 하나 있다. 이곳을 645년의 전쟁 당시 안시성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당 태종이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기 위해 60일 동안 산을 쌓았다는 그 토산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전투에서 얼마나 애가 탔으면 산을 다 쌓았을까? 그만큼 성민들의 항쟁은 필사적이었던 뜻일 것이며, 그 필사적인 항쟁이 주요 성들의 함락으로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쉽게도 안시성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고구려의 깃발을 요동 평원에 휘날리게 했던 요동성은 어디에 있을까?” 요양 시내 변화가에 서서 질문을 던져 본다. 612년 100만 대군을 앞세운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냈으나, 645년 당나라의 침략에 함락되며 영욕의 세월을 보낸 요동성. 도성이 아닌 곳으로는 드물게 평지성이었던 요동성은 역사의 부침 속에 사라져 이제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요동성

## 안시성, 승승장구하던 당군을 가로막고, 끝내는 물리치다

645년 요동 반도의 해안과 요동 평원의 내륙에서 수륙 양공으로 고구려를 침략한 당나라는 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천리장성 상의 주요 성들을 차례차례 함락시키고 승승장구하며 안시성 앞에 도달했다. 당 태종 이세민은 화심의 미소를 지었다. 안시성의 성주가 지락이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라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요동성을 12일 만에 함락시키고 백암성도 성주의 항복으로 손쉽게 얻은 후라 안시성을 손에 넣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안시성을 무너뜨리면 평양성은 이미 무릎을 꿇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것은 당 태종의 오만이었다. 안시성은 요동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전략상 중요했기에 매우 견고하게 지어졌을 뿐더러 안시성의 성주와 성민은 예상을 뛰어넘는 용맹과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

대대적인 물량을 동원해 당군은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결사항전에 나선 안시성은 꿈쩍하지 않았고 공방전은 몇 달을 끌기에 이르렀다. 도무지 함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나라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고 이세민은 분노했다.

“안 되겠다! 안시성보다 더 높은 산을 쌓아서 안시성을 뭉개라!”

안시성을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세민은 급기야 연 인원 50만 명을 동원해 안시성 옆에 토산(土山)을 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급하게 쌓은 산은 곧 무너져 안시성의 성벽을 덮쳤고, 안시성의 성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황하는 당군을 공격하여 토산마저 빼앗았다.

성과 없이 전투가 길어지고 애써 쌓은 토산마저 빼앗기자 당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완전히 꺾였고, 군량미도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세민은 철수를 명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를 안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되었다.

현재의 요양 시가에 자리 잡았던 요동성은 예로부터 요동 지방의 중심지였고, 고구려가 중국 세력을 몰아낸 뒤에는 요동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고구려의 거점성이었다. 고구려와 관련한 요동성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구려가 2세기 초반 이후 요동 지역 공략을 시작해 늦어도 4세기 말에 들어서면 5세기 초에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요동성을 요동 지배의 중심성으로 삼았음이 확인된다. 요동성은 규모가 컸다고 전해지는데, 645년 당나라가 침공했을 때 성 안에 군사 1만을 포함한 5만여 명의 성민과 군량미 50만 석이 있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요동성의 모습은 북한에서 발견된 요동성총의 성곽그림을 통해 대강 그려볼 수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요동성은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태자하**  
요동성을 끼고 흐르던  
태자하의 모습





이중성으로 이루어진 평지성이었다. 각 모서리에는 각루가 세워져 있었고, 외성의 동문과 서문에는 2층의 문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내성에는 기와를 얹은 2층 건물과 3층 목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요동성에 관청과 사당, 사찰 등 주요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동성에 있었다는 주몽 사당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

한편 요양시 남쪽에는 수산(首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645년 요하를 건너온 당 태

종이 요동성 공략에 앞서 진영을 세웠던 미수산으로 알려져 있다.

## 석대자 산성

요동성터에서 북쪽으로 길을 잡아 오르면 심양의 외곽에서 고구려 산성 하나를 만난다. 심양의 동북쪽에 자리 잡은 석대자산성이다. 고구려가 혼하 연안로의 요충지를 방어하고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쌓은 산성이다.

현재 기반산 댐으로 차오른 물이 성벽을 에워싸고 있지만, 본래는 구릉이 있는 평지로 산성의 서북쪽이 길림합달령이라는 산맥의 끝자락으로 이어지고 동남쪽은 포하 연안의 평지였다. 신성과 요하를 잇는 교통로 상에 있어 신성과 연결성이 높았던 성으로 보인다.

성의 전체 둘레는 1,384미터에 이르고 대개의 고구려 산성들처럼 산등성이를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돌은 길쭉한 췌기꼴 형으로 다듬어져 가지런히 쌓아올렸다. 성벽에는 모두 10기의 차를 두었는데, 기단부가 잘 남아 있어 치밀하게 맞물린 성벽과의 연결 이음새를 살펴볼 수 있다.

## 요동 지역의 고구려 성과 방어 체계

요동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고 평양으로 천도한 뒤 고구려는 요동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많은 산성을 쌓아 겹겹이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방어망은 실제 수와 땅이라는 거대 국가와의 전쟁에서 효과를 발휘했는데, 천리장성 담사 코스의 산성 유적과 관련해서 당시의 교통로와 방어 체계를 살펴보자.

당시 요동 지역에서 평양성으로 가는 교통로는 여러 길이 있었다. 첫째는 요동성이나 개모성(심양)에서 백암성을 지나 지금의 본계나 봉성을 거쳐 내려오는 길, 둘째는 안시성에서 수암을 거치는 길, 셋째는 발해만을 건너 건안성에서 지금의 장하를 거치는 길, 넷째는 요동 반도의 남단인 비사성에서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으며, 그 외 흔하 상류에 위치한 신성을 통하는 길도 있었다.

이렇게 신성,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건안성, 비사성 등은 평원지대에서 천산산맥 동쪽의 산줄기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주요 성들이었다. 이 중 요하 하류는 늪지대가 많아 중국 대륙에서 요하를 건널 수 있는 길은 요동성을 향하는 길이 주 교통로였다. 아니면 더 북쪽의 개모성, 신성 쪽으로 우회하거나 발해만을 건너 건안성이나 비사성을 제압하는 길뿐이었다.

수나라 양제는 침략 때 요동성을 바로 공격하는 길만 고집했다. 때문에 요동성 주변의 성들이 요동성을 지원하여 요동성 공략에 실패했던 것이다. 당나라 태종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요동성을 제외하고 천리장성 상의 다른 성들을 먼저 공격해 성들 간의 연결 고리를 끊고 요동성을 공격하는 계략을 짰다. 당 태종의 이런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 요하라는 천연의 방어선이 쓸모없어졌고, 비사성, 요동성, 개모성, 백암성 등이 함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건안성과 신성 등을 지켜낸 고구려는 안시성에서 고전하는 당군을 배후에서 입체적으로 위협함으로써, 결국 당나라의 1차 침략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수나라 양제가 이끈 100만 대군을 맞아 기지와 용맹으로 고구려를 승리로 이끈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 고구려를 이는 사람치고 살수대첩과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지만, 을지문덕 개인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을지문덕의 성인 '을지'가 연장자나 가부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을'만을 성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도 그가 이끈 살수대첩만은 확연하다.

612년 수나라 양제가 직접 113만 3천 800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 수나라의 본대가 요동성의 철통같은 방에 부딪쳐 고전하는 가운데, 별동부대는 우문술과 우중문의 지휘로 평양성으로 향했다. 30만의 수나라 별동대가 압록강에 포진하자 을지문덕은 적진을 엿보기 위해 거짓 항복을 했다. 우중문은 영양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사로잡으라는 양제의 명령이 떠올랐으나, 부관 유사룡이 이를 말렸다.

“스스로 항복한 장수를 어찌 사로잡겠습니까?”

우중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을지문덕은 즉시 압록강을 건너왔고, 뒤늦게 후회한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잡으러 추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적군들이 굶주리고 지쳐 있음을 미리 간파했다. 그래서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도망쳐 적군을 추격으로 지치게 한 후, 살수(지금의 청천강)를 건너 평양성에 바짝 다가온 적군에게 시를 지어 보냈다.

신비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神策究天文), / 오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했다(妙算窮地理).  
전쟁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戰勝功既高), / 원컨대 족함을 알고 그침이 어떠랴(知足願云止).

그리고는 “철군을 하면 왕을 모시고 가 신하의 예를 갖추겠노라.”는 전갈을 적진에 보냈다. 수나라 장수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군사들이 지쳐 고구려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군을 시작했다. 그러자 을지문덕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격했다. 특히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치명적 공격을 가해 압록강을 건너 요동까지 살아간 자가 2천 7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이라 역사에 기록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성 안에는 거주공간으로 추측되는 넓은 공간이 여러 군데 있으며, 타원형의 내성(內城) 공간도 확인된다. 성문은 동쪽, 서북쪽, 서남쪽에 하나씩 있었다.

한편 심양시가 동남쪽으로는 탑산산성이 있다. 645년 당나라의 침략 때 처음으로 함락된 개모성으로 비정된다. 산성은 평원 한가운데 솟아 있는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정면에 백암성이 있는 본계로 향하는 도로가 지나간다. 요동 평원과 본계 방향을 오가는 교통로를 장악하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채석장이 들어서 자취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석대자산성 서벽의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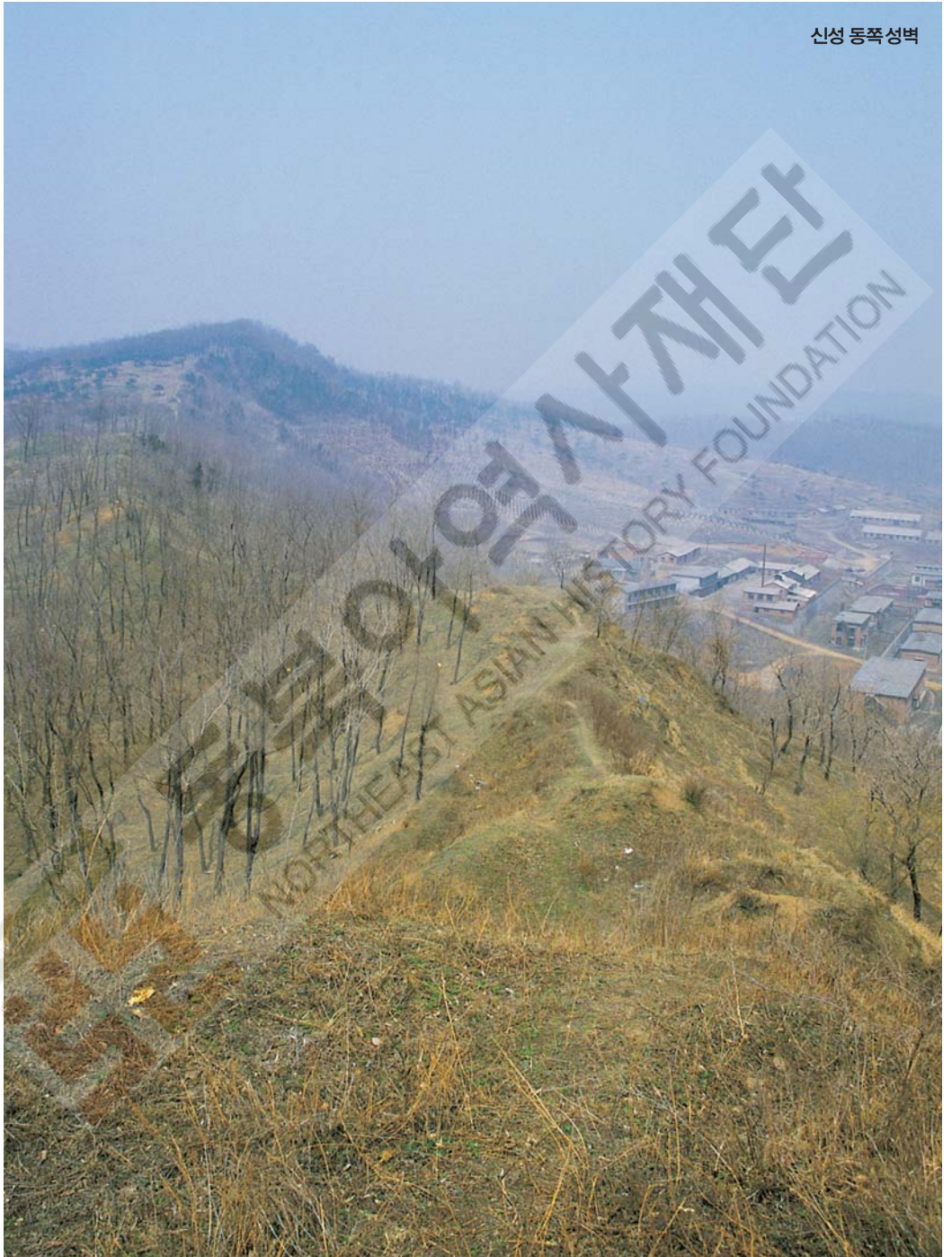


석대자산성 남벽의 축조 모습

## 신성

요동성터가 있는 요양시에서 심양을 거쳐 동쪽으로 무순시로 가면 고이산에 자리 잡고 있어, 현재 고이산성이라고 불리는 신성을 만날 수 있다. 신성은 해발 230미터의 고이산 정상에서 뻗은 산등성이가 동과 서, 북쪽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혼하가 마주 보인다. 이 혼하를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드넓은 요동 평원으로 나갈 수 있고, 상류로 거슬러 오르면 산간지대로 나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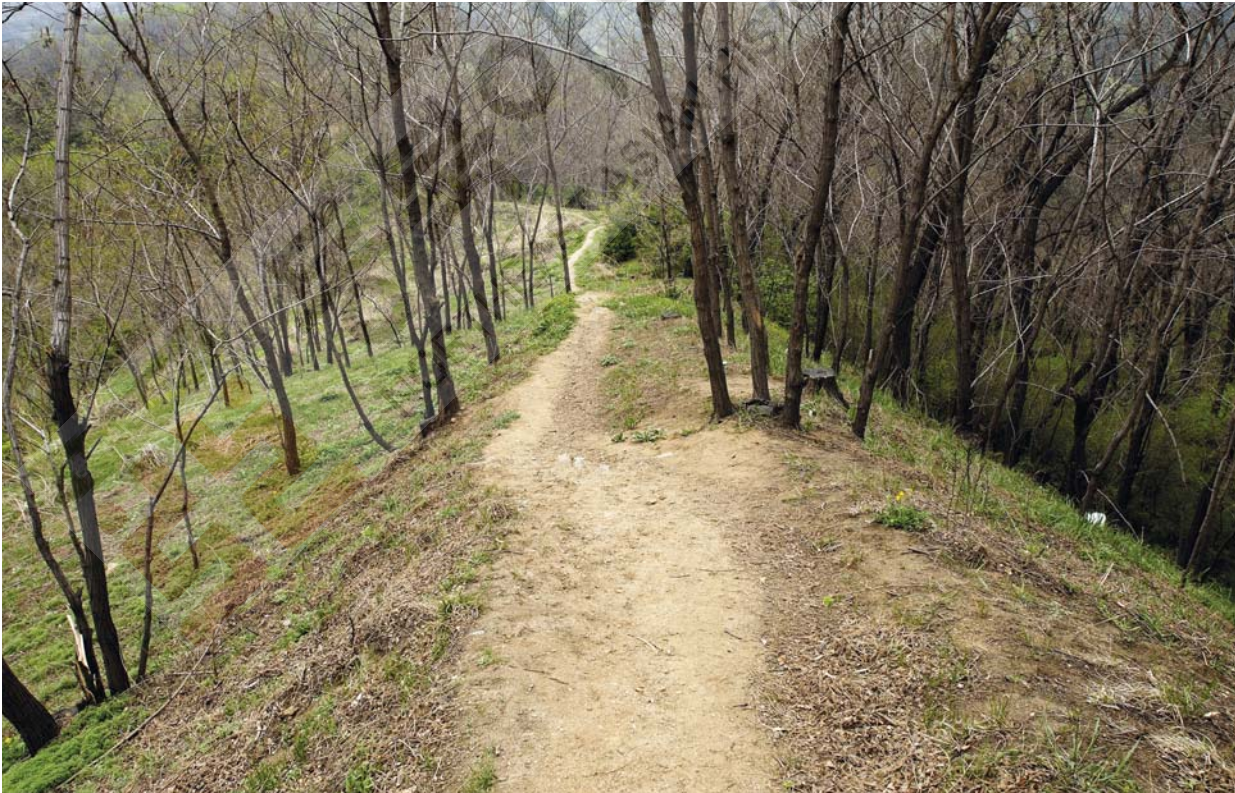
한의 현도군을 몰아낸 고구려는 현도성이었던 현재의 노동공원에 있던 토성을 평지성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변에 산세가 적합한 곳을 골라 산성을 쌓고 신성(新城)이라 이름 붙였다. 이후 신성은 요동 진출의 거점이면서 고구려 서북방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지였다. 신성은 645년 당의 1차 침략 때 두 번에 걸친 대대적인 공격에도 성을 지켜낸 바 있으며, 이로써 안시성 싸움에서 지친 당군에게 위협적인 배후가 되



기도 했다.

둘레가 4킬로미터에 달하는 신성은 동성(東城)과 서성(西城), 북위성(北衛城), 남위성(南衛城), 그리고 동남쪽의 이중 성곽으로 이루어진 산성이다. 성벽은 흙으로 쌓은 토벽과 돌로 먼저 쌓은 후 그 위에 흙을 덧쌓은 혼합식이 어우러진 형태다. 동성이 먼저 만들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에 따라 서성과 부속 성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적의 공격을 받아 방어력을 강화해야 했고, 지방 통치의 거점성으로 발전하면서 주민들이 주거할 공간이 필요해 성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중심 성은 먼저 축성된 동성이다. 이곳에서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나왔다. 서성은 비상시 동성을 보조하던 구역으로 보인다.

동성의서벽





성문의 경우는 동성 쪽에 북문과 남문, 동문이 확인되고, 서성 쪽으로 통하는 서문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신성의 동쪽 산비탈에서는 약 40기의 고구려 돌방흙무덤으로 이루어진 ‘시가구 무덤떼’가 있다. 신성에 거주하던 지방 귀족들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 쪽은 답사가 까다롭지만 서성의 남위성에는 요금(遼金) 시대에 세워진 팔각전탑이 있고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어 쉽게 오를 수 있다.

무순의 신성을 둘러보고 동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요하 중류 일대에 고구려가 세운 산성들을 만날 수 있다. 청룡산성이 그중 하나이다.

철령시를 흐르는 범하(汎河) 남쪽 청룡산에 자리 잡은 청룡산성. 산성의 동북쪽 5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자리한 최진보산성과 함께 범하의 좌우에서 요하 중류 지역의 평원인 송요 대평원에서 범하 연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룡산성은 6개의 작은 언덕을 둘러싼 형태의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 청룡산성



동북아시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최진보 산성

약 4킬로미터에 이른다.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은 지형이며 가운데 능선이 있어 성을 동성과 서성으로 나누고 있다. 성벽은 토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형에 따라 돌과 섞어 쌓은 토석혼축의 축조방식도 쓰였다. 성문터는 동성의 남과 북, 서성의 북쪽에서 확인된다. 동성 북문의 경우 바깥쪽에 차단벽을 따로 두어 방어가 어려운 평지에 놓인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성의 각 모서리에는 망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돌로 가장자리를 쌓은 다음 흙을 쌓아 올려 성 내부와 범하 연안의 평지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성 안은 넓은 평지여서 거주를 위한 건물을 세우기에 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기와조각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청룡산성은 먼저 쌓은 최진보산성만으로는 범하 연안의 넓은 지대를 통제하기 어려워 후에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철령시 남쪽, 범하 북쪽 골짜기에 자리 잡은 최진보산성은 고구려가 요하 중류 지역에 진출한 초기에 구축된 성이다. 범하를 가운데 두고 마주한 청룡산성과는 반대로 해발 260미터의 산봉우리가 솟아 있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범하에 가까워 낮다. 산성은 둘레가 7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형산성으로 산등성이에 솟은 높은 절벽은 천연장벽으로 삼고, 중간 중간 낮은 구간에는 성벽을 축조하였다. 석벽은 서북쪽에 가장 잘 남아 있는데, 성돌을 다듬어 벽체의 안팎을 정연하게 쌓아올린 고구려 고유의 성벽 축조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남쪽 골짜기 쪽은 양쪽 산등성이를 두터운 토벽으로 입구를 가로막았다.


성문터는 남쪽과 북쪽에서 확인된다. 남문의 경우는 쌓아올린 토벽과 산등성이가 성문을 감싸는 웅성 구조다. 성벽의 각 모서리에는 감시초소인 망대로 추정되는 흙더미들이 있고, 장대는 성 안의 중앙 후대에 건

축된 관음각터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에 서면 성 안은 물론 남문과 범하, 그 너머 평원까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산비탈과 산등성이 여러 곳에는 건물터와 거주지터가 확인된다.

최진보산성의 서북쪽 성벽 전경







오룡산성 • 구노성 • 나동산성  
태자성 • • 흑구산성  
고검자산성 • 북구관애  
성장림자산성

고 구 려 를 찾 아 서

# 수도 방어성

## 1. 답사하기 전에

수도 방어성 돌보기

## 2. 답사 떠나기 - 고구려의 철벽 방어선을 찾아

나동산성 · 흑구산성 · 구노성 · 오룡산성 · 태자성 · 고검자산성 · 성장림자산성 · 북구관애

### 수도 방어성 돌보기

큰 하천과 강을 끼고 지형에 맞는 산성을 구축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과 지방 통치를 이룩한 고구려. 아직 요동 평원을 모두 장악하기 전, 국내성을 도읍으로 삼고 있던 시기 고구려는 국경으로부터 왕도에 이르는 구간에 산성과 관애를 겹겹이 축조하였다. 국경선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외곽산성을 두고, 외곽산성과 왕도 사이에는 작은 산성과 관애를 배치

칠개정자란에



했던 것이다.

미안산성, 건설산성 등 작은 산성은 고검지산성, 흑구산성 등 외곽 산성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 관에는 중간 방어선인 흘승골성, 패왕조산성에서 국내성에 이르는 4개의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즉 국내성의 방어선은 최전선에서 2중, 3중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성에서 요동 지역으로 나가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신성이 마련된 뒤에는 환인 일대에서 요동으로 이어지는 2개의 교통로에 철배산성, 오룡산성, 구노성, 나통산성, 태자성 등을 축조하여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환인과 두 번째 수도인 집안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 상의 방어성 모두를 답사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성 몇 곳이라도 답사해 보자. 일정에 따라 답사지를 좀 더 추가하거나 조정하면 된다.

# 고구려의 철벽 방어선을 찾아

## 나통산성

혼강 상류 유역의 중심지이며 부이강 상류에서 나고하를 거쳐 집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거치는 곳이 통화 지역이다. 통화는 고구려가 북부 지역을 통치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고구려 초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돌무지무덤떼도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어, 일찍부터 고구려인들의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성에서 북부여의 중심지(길림시 일대)까지는 통화에서 북상하여 휘발하 유역을 거쳐 북쪽으로 송화강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다. 통화시 혼강변에 세워진 자안산성과 인근의 적백송고성이 군사시설이자 통치 거점으로 통화 지역을 관장하였다.

### 나통산성

서성북벽은 암벽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한편 통화 북쪽, 유하현의 해발 960미터 나통산에 자리 잡은 나통산



성은 동과 서에 세워진 두 개의 성곽이 하나의 성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곽식 산성이다. 주성은 서성으로 험준한 산 정상 가까이 만들어져 평지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반면, 서성에 이어져 있는 동성은 평지에 가까이 지세가 평탄한 편이다.

먼저 서성을 보자. 서성의 길이는 3,737미터로, 성벽은 잘 다듬은 돌로 쌓아올렸다. 절벽 구간에는 따로 성벽을 쌓지 않았다. 성벽 위에서 적을 공격할 때 몸을 숨기는 시설인 성가퀴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성문은 성의 남과 북 양쪽에 그 자리가 남아 있는데,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남문의 경우 앞쪽 산비탈에 한 줄기의 성벽을 쌓아 두 겹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북문 쪽에 건물터가 확인되며, 남문으로 평탄한 곳에는 저수지가 남아 있다.

동성은 서성보다 자연 절벽을 이용한 곳이 많아 돌로 쌓은 성벽은 일부에서만 볼 수 있다. 평원과 연결되는 북문은 우묵한 반원형의 옹성구조를 보인다. 동성은 지대가 평탄해서 유사시에 성 안으로 피난 온 주민들을 수용하고 물자 등을 저장하는 데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건물터 등의 유적과 함께 철제 갑옷 조각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된 바 있다.

환인에서 북쪽으로 소자하 연안로의 구노성에 못 미쳐 신빈현 흑구촌 해발 700미터 산 위에 자리 잡은 흑구산성. 동쪽으로 부이강이 흐르고 남쪽으로 부이강의 샅강인 취류하가 있어 하천이 모여들고 땅이 비옥한 곳에 자리 잡은 고구려 초기의 산성이다. 흑구산성이 고구려 건국 전 부이강 주변에 자리 잡았던 비류국 송양의 성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산성은 8개의 산마루와 그 사이에 트인 곳에 성벽을 쌓아 이루어졌는데, 절벽을 이용한 자연 성벽과 다듬은 돌을 쌓아올린 벽이 연결되어 있다. 전체 둘레 1,493미터 중 3분의 2가 자연 절벽 구간이다.

## 흑구산성



흑구산성의동벽

산성 안은 비교적 평탄한 편으로 모두 여섯 곳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부이강이 내려다보이는 동벽 구간에는 평면 장방형의 옹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이 정문이다. 이 성에서 돌로 쌓은 석벽이 가장 긴 구간은 서벽이다. 서벽 바깥쪽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는데, 절벽을 따라 석벽을 축조했다. 특히 이 구간에는 고검지산성 등에서 볼 수 있는 기둥구멍 25개가 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산성의 북쪽 벽에는 튀어나온 산마루를 망대로 삼은 듯하며 그 옆으로 치를 두어서 북문을 보호하고 있다.

## 구노성

342년 전연은 고구려를 침략하기에 앞서 고심에 빠졌다.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북도로 침공할 것인가? 좁고 험한 남도로 침공할 것인가? 고구려는 침공군이 평탄하고 넓은 길로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북도에 정예군을 보내 길목을 지켰다. 그러나 전연군은 허를 찔러 남도를 넘어 고

구려를 침공했다. 고구려는 국내성이 함락되고 왕모를 포함한 5만 명의 백성을 포로로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현재 북도와 남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따르더라도 무순을 지나 환인으로 이어지는 소자하 연안로가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주요한 교통로라는 것인데, 무순의 신성을 비롯해 오룡산성, 각이찰성 등 고구려 성들도 이 통로에 여럿 축조되었다.

구노성도 그중 하나다. 환인에서 서북쪽으로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구노성이 자리한 일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소자하를 따라 평지가 펼쳐져 있다. 또한 환인과 심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지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를 알고 있었기에 중국 측은 요동 지방을 놓고 대립하던 고구려를 경계하기 위해 현도군을 이곳에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곳에 설치된 제2 현도군을 무순 방면으로 몰

#### 구노성

다섯 개의 산봉우리를 이어 성벽을 축조한 대규모 산성



아내고 고구려 방식대로 구노성을 쌓음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했다.

최근 구노성이라는 이름 대신 만족식 이름인 비아랍성으로 명칭이 바뀐 이 성은, 해발 375미터의 최고봉을 중심으로 이어진 5개 봉우리를 남쪽에 두고, 북쪽으로는 두 개의 골짜기를 품고 있어 전체 둘레가 5,660미터에 이르는 대형 산성이다. 성벽은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쌓은 방식으로 축조해 자연 능선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성에는 다섯 곳, 내성에는 여섯 곳의 성문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옹문 구조가 확인된다.

한편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건주여진의 누르히치가 이 성을 다시 활용해서 본거지로 삼았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무렵 이곳을 방문한 조선사신 신충일이 남긴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에 당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현재 내성에 남아 있는 한왕대(汗王臺)라는 건물터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오룡산성

구노성에서 소자하를 따라 무순의 신성 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 동쪽 골짜기에 산성을 하나 만날 수 있는데, 이 산성이 오룡산성이다. 산성은 해발 428미터의 산봉우리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안쪽 골짜기를 감싼 형태로 전체 둘레는 2,107미터에 이른다. 성벽은 본래 돌로 쌓았으나 대부분 사라지고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오룡산성의 정문은 서문으로 추측된다. 양쪽으로 솟아오른 봉우리가 골짜기를 보호하는 형세의 서문터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완만한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서벽은 기파른 자연 성벽을 이용했지만, 다른 세 면에서는 돌로 성벽을 쌓아올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남벽은 완만한 산비탈을 따라 성벽을 쌓았고, 그 중간 지점에 남문터가

오룡산성



오룡산성의 내부



남아 있다.

성 안에서는 우물터가 발견되었고,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는 성 안의 대지에서는 건물 초석과 고구려 때의 기와조각이 출토되어 건물터였음을 알 수 있다. 철 찌꺼기도 나와서 제련이나 병기를 주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게 한다.

한편 오룡산성의 지형은 주변의 산줄기와 단절되어 방어하기에는 좋지만, 소자하 연안로에서는 떨어져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따로 소자하 연안로 근처 협곡에 차단벽을 세워 교통을 통제했다. 현재 차단벽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태자성

구노성이 위치한 소자하 연안로를 북도로 추정할 수 있다면, 요동성과 그 배후에 있는 백암성, 변우산성 등이 있는 태자하 일대는 전연군이 고구려의 예상을 뒤엎고 침공로로 선택한 ‘좁고 험한’ 남도로 추정할 수 있다. 전연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이후 고구려는 요동에서 환인, 집안

절벽을 이용한  
태자성의 동남벽





태자성 내성에서 바라본  
외성과 성안

으로 이어지는 태자하 연안로에 여러 성을 구축하면서 방어 체계를 갖 추고, 나아가 요동을 지배하는 데 배후 기지로 삼았다. 태자성은 그러한 방어축에서 태자하의 상류에 위치하며 환인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고 검지산성 등의 전면에 배치된 성이다.

동쪽에서 흘러온 북태자하와 셋강인 소협하가 만나는 지점에 축조된 태자성은 동북과 서남쪽이 높이 올라가고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는 분 지형의 지세를 품고 있다. 동쪽의 경사지대에 내성이 있고, 그 서쪽에 외성이 자리 잡았는데, 내성의 성벽이 잘 다듬은 뿔기형 성돌을 많이 사 용한 반면, 외성의 성벽에는 긴 장방형 성돌이 많이 보인다. 이로 보아 군사적인 목적에서 산 정상부에 내성을 먼저 쌓아 사용하다가 후에 거주민들과 시설물들을 추가로 수용할 필요가 생겨 외성을 빠른 시간 내 에 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문터는 북문과 남문, 내성과 외성 간의 내성문이 있다. 북문은 성 중앙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세웠고 용성을 둘러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문 동편에는 거대한 암반이 북태자하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를 다듬어 북문으로 들어오는 적을 상대하는 적대(敵臺)로 삼았다. 내성과 외성에 각각 하나씩 봉화대도 확인되었다. 성 안에서 기와조각이 많이 발견되어 주요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 고검지 산성

고검지산성은 환인현 목우자진 고검지촌 북쪽의 산성자산에 자리 잡은 산성이다. 태자하 상류에 있어 태자성 등과 함께 요동에서 환인으로 들어오는 교통로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던 방어성이다. 고구려 초기에는 고구려 영역에서 최서북단 산성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발 831미터 높이의 봉우리에 1,466미터에 이르는 성벽을 두르고 있으며, 서남 쪽으로 골짜기를 품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전체적으로 성의 보존 상태가 좋지만, 특히 절벽 위에 쌓아올린 동북 쪽의 성벽 구간이 가장 잘 남아 있다. 성가퀴도 확인할 수 있다. 북벽의

고검지산성  
북벽을 바깥에서 바라본  
것이다





고갯자산성의 기둥구멍

경우는 전체적으로 잘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아올렸다. 한편 서벽 구간 성벽 위에서는 기둥구멍이 약 2미터 간격으로 9곳에 걸쳐 남아 있다. 집안의 환도산성과 흑구산성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성문터는 모두 네 곳이다. U자형 옹문의 구조를 보이는 남문과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북문, 그리고 동쪽에 한 곳이 있다. 북문에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성 안에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어,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건물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성장립자산성은 환인시 남쪽의 사철자진 동남쪽 해발 500미터의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환인과 집안을 연결하는 도로에 가까워 혼강 물길과 집안으로의 진입로를 방어하던 산성이다. 주변의 외방구산성, 북구관애, 압록강변의 칠개정자관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내성 방어 체계의 한 축을 담당했다. 남쪽에 100미터에 이르는 석벽을 쌓았고, 동과 서, 북쪽의 삼면은 가파른 절벽 등을 이용한 자연 지형을 성벽으로

성장립자  
산성

서쪽에서 바라본  
성장립자산성의 전경







### 고검지산성

요동에서 환인으로 들어오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환인의 오녀산성과 동일한 축상법이 사용됐다.

삼았다. 석벽은 보통 고구려 성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잘 다듬은 성돌을 쌓아올린 형태지만, 현재는 많이 무너져 있다.

성 안의 면적은 남북 400미터, 동서 300미터로 작은 편이다. 성문은 성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동북부에 하나가 있는데, 양 옆에 깎아지른 절벽이 솟아 천연성문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 성의 서남쪽 모서리에는 타원형의 석대도 있다.

### 복구관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성을 구축하고, 각각의 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입체적 방어 체계를 구축한 고구려. 그중에서도 특히 자연적 지세를 잘 활용해 적은 비용과 수고를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방어했던 것이 바로 차단성, 즉 관애라고 할 수 있다.

관애는 우회로가 없거나 돌아서 가기에 지세가 험한 교통 요지의 계곡과 계곡 사이에 설치한 관문이다. 주로 도성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 설치되었는데, 양쪽 계곡을 연결하는 벽을 쌓고 문을 내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마소는 이 협곡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출입을 쉽게 감시

하고 통제할 수 있었으며, 비상시에는 이곳만 차단하면 차단벽이 방어 시설이 되었다.

북구관애는 환인시 사척자진 북구촌의 간구자 협곡에 자리 잡은 관애다. 환인에서 혼강 하류를 통해 가다가 이곳을 거쳐 집안 경내로 들어갈 수 있다. 관애는 협곡에서도 가장 좁은 곳, 벼랑 사이를 남북으로 잇는 기다란 석벽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지금은 북단과 남단 끝에 돌 두둑으로만 남아 있다. 본래는 다듬은 돌로 바깥 면을 쌓고 안쪽에는 잔 돌로 채웠을 것으로 보인다. 관애를 드나들던 문은 현재 도로가 지나는 곳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과령관애, 관마장관애 등이 수도 집안의 서북부의 길목을 지키던 방어선이었다면, 북구관애는 근방의 성장립자산성과 외방구산성 등과 함께 서남쪽에서 수도 집안을 수호하던 방어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구관애의 남쪽 압록강 주변에는 압록강 수로와 육상 통로 간의 교통을 차단하던 관애인 칠개정자관애와 노변장관애가 확인된다.

북구관애



## 고구려는 어떻게 성을 쌓았을까?

성 쌓기가 한창인 고구려 시절로 돌아가 산성 축조의 감독을 맡은 지방관 '나산성' 씨의 눈을 통해 성을 쌓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산성 축조 감독의 책임을 맡은 지방관 나산성은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서 산성 축조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때는 7월이라 이른 시간인데도 경사가 있는 산을 오르자니 땀이 축축이 배어났다.

“백성들이 농사를 쉬는 한겨울(2월경)이나 한여름(7월경)에만 성을 쌓자니 산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이구먼.”

백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자 나산성은 조를 나누어 각각의 구간으로 일을 보냈다. 한쪽에서는 돌을 다듬는 정소리가 요란하고, 다듬어진 성돌을 나르느라 시람들이 또 부산스럽다. 오늘 일을 나온 장정들의 명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관리 하나가 막사로 들었다.

“이제 서벽 구간은 끝나가고 남벽 구간이 시작되는데, 흙과 돌을 섞는 방식으로 계속할까요?”

산성을 쌓던 초기에는 돌을 주로 이용해 벽을 쌓았지만 점차 지세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 토성을 쌓거나 토석혼축성을 쌓았다. 토석혼축성은 고구려 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순수 토석혼축법과 하단부와 석벽을 쌓고 상단부에 토벽을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야지. 무엇보다 기초부를 튼튼하게 다진 다음 본격적으로 벽을 쌓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게.”

주먹밥과 멀건 국으로 점심을 마친 나산성은 잠시 쉬고 있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 축조가 끝난 북벽 구간을 돌아보았다. 망대에 올라서니 바로 앞의 강을 넘어 넓은 평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의 산세는 평원 가운데 솟아 조망이 좋으며, 계곡의 물이 풍부하다. 이에 성을 쌓기에 적합한 요지로 진작 주목된 곳이었다. 게다가 동벽 구간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구간이라 따로 성벽을 쌓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다.

정신없이 바쁜 오후를 보내고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간다. 펼쳐둔 문서들을 정리하는데, 웬 허름한 입성의 장정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섰다.

“울 마누라가 만삭이라 오늘내일 하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애새끼를 받아야 해서 여기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허, 이 사람 장정 하나가 한 달을 꼬박 일해야 겨우 성벽 1자를 쌓는데, 일은 태산이고 어찌란 말인가. 대신 일 보낼 장정은 없나? 열다섯만 먹으면 누구든 괜찮은데, 뭐 하여간 어찌겠나. 아이가 태어난다니 되는대로 일 치르고 나오게나.”

나산성은 사고 없이 내일도 무사히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현장을 나섰다.

# 성(城), 고구려의 숨결이 어린 그곳

고구려 700년의 역사. 나라를 열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문을 닫은 마지막 그날까지 고구려는 성의 나라였다. 교통의 요지, 방어의 요지 곳곳에 고구려는 성을 쌓아 물샐틈없는 방어망을 구축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고구려의 유적 중 성곽들은 특히 고구려의 지방 통치와 영역 지배의 양상을 보여주는 생생한 유적이다. 굽이굽이 들어가는 좁고 불편한 산길. 그 길을 오가는 고달픈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옛 성들을 직접 보고 김탄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상지대학교

상지

동북아시아재단

NORTHEAST ASIAN LIBRARY FOUNDATION



환도산성  
丸都山城





# 환도산성 丸都山城

(성군관대 박물관)





백암성  
白巖城





국립민중역사재단  
NATIONAL PEASANT HISTORY FOUNDATION

구노성  
舊老城



태자성  
太子城







고검지산성  
高儉地山城







아름다운재단  
ASIAN HISTORY FOUNDATION



최진보산성  
催陣堡山城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칠개정자관애  
七個頂子關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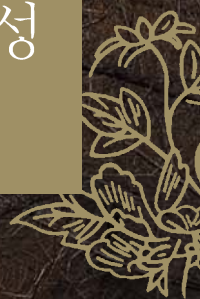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산산성  
城山山城



위패산성  
魏霸山城







독리사산성  
得利寺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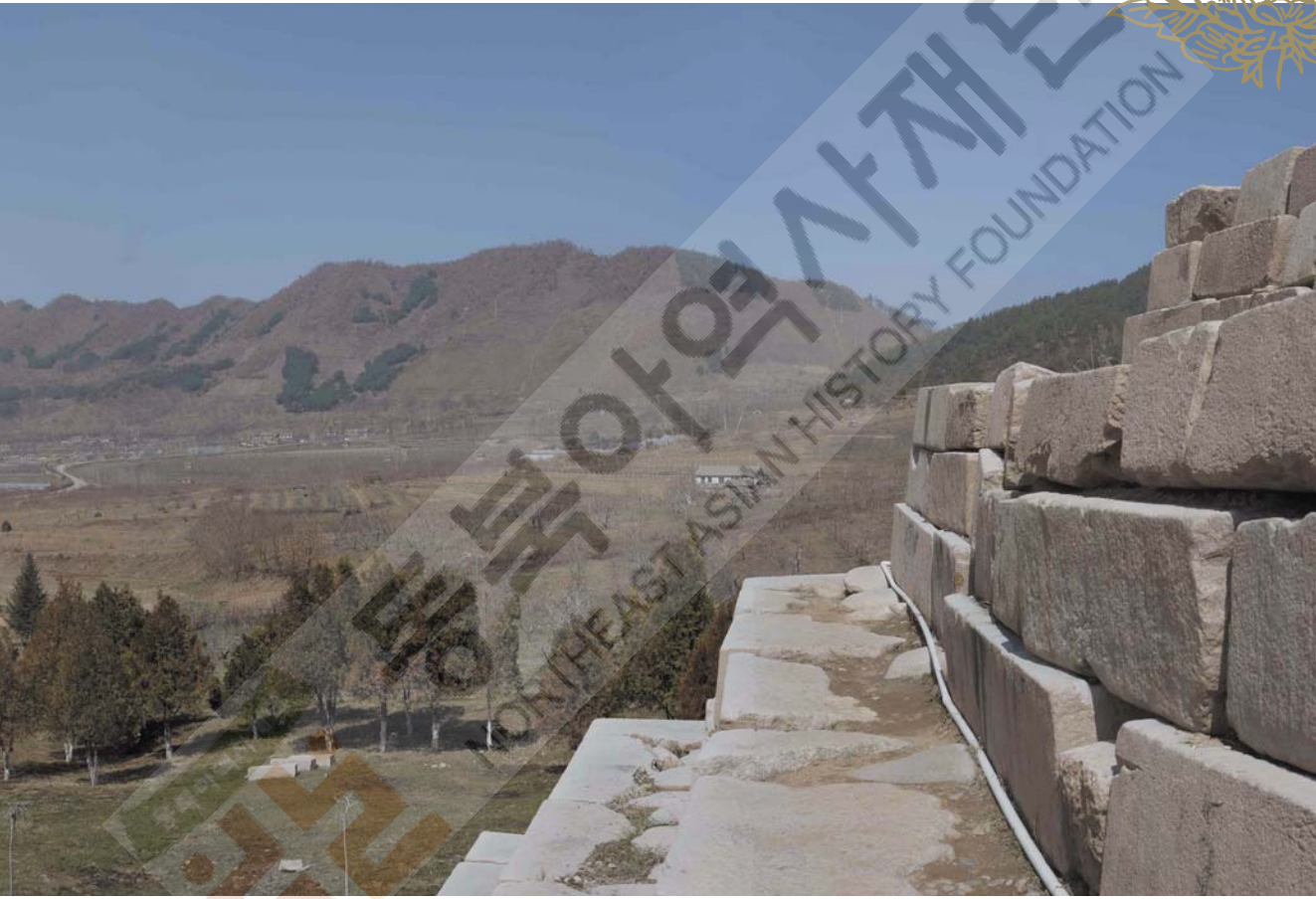




북부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군총  
將軍塚

(성군관대 박물관)



ㄱ

각저총 … 90  
 개모성 … 165, 167  
 건안성 … 132, 156  
 고검자산성 … 142, 179, 182, 188  
 고국원왕 … 46, 53, 89, 98, 100, 104  
 고려묘자 무덤떼 … 23, 30  
 고려성자산성 … 147, 156  
 고이산성 … 168  
 관구검 기공비 … 73, 113  
 광개토왕 … 47, 53, 60, 76, 86, 97  
 광개토왕릉비 … 20, 52, 56, 80  
 구노성 … 179, 182  
 국내성 … 16, 44, 52, 80, 87, 178, 189  
 국동대혈 … 95  
 기둥구멍 … 144

ㄴ

나통산성 … 179, 180  
 남도 … 43  
 낭랑산성 … 147, 158

ㄷ

단동 … 127  
 득리사산성 … 147, 153

ㄹ

마선 2100호 … 102, 103  
 모두루총 … 97  
 무용총 … 90

미창구 장군묘 … 40

미천왕 … 46, 53, 60, 104, 105

ㅂ

박작성 … 128  
 백암성 … 117, 160, 165, 167, 186  
 본계수동 … 122  
 봉황산성 … 132  
 북구관에 … 189, 192  
 북도 … 43  
 북부여 … 20  
 비류국 … 17  
 비사성 … 142

ㅅ

산성자산성 … 65  
 상고성자 무덤떼 … 17, 32, 34, 36, 38  
 시대묘 … 102, 104  
 서안평 … 127, 129  
 서안평성 … 128, 133  
 석대자산성 … 164  
 성산산성 … 147  
 상장랍자산성 … 189, 193  
 소현세자 … 116  
 송양왕 … 17  
 신탁 유적 박물관 … 115  
 신성 … 168  
 심양 … 110  
 심양 고궁 … 115

○

안시성 ... 132, 158, 160  
 압록강 ... 127, 128, 132, 133  
 애하첨고성 ... 129  
 연주성 ... 117  
 영성자산성 ... 160  
 오골성 ... 132, 147, 158  
 오녀산 박물관 ... 32  
 오녀산성 ... 17, 18, 30, 36, 72, 112  
 오룡산성 ... 179, 184  
 오희분 ... 89  
 요녕성 박물관 ... 112  
 요동성 ... 156, 161  
 용담산성 ... 154  
 위패산성 ... 147  
 유리왕 ... 59, 64  
 유화 ... 28  
 임강묘 ... 89

ㄱ

장문총 ... 37, 52, 83, 89  
 장수왕 ... 52, 60, 80, 86  
 전연 ... 43, 53, 98, 100  
 졸본 ... 16, 29  
 졸본성 ... 20, 30  
 주몽 ... 16, 26, 80, 82, 96  
 집안 ... 52  
 집안 박물관 ... 56

ㄷ

천추총 ... 102, 103

철배산성 ... 179  
 청룡산성 ... 171  
 청석관산성 ... 156  
 최진보산성 ... 174  
 추모왕 ... 20  
 철개정자관애 ... 189, 193

ㅌ

탑산산성 ... 167  
 태왕릉 ... 37, 52, 57, 76  
 태자성 ... 179, 186

ㅍ

패왕조산성 ... 179

ㅎ

하교상자 성터 ... 17, 35, 36, 72  
 호산산성 ... 128  
 환도산성 ... 38, 52, 59, 65, 155  
 환인 ... 16, 20  
 흑구산성 ... 179  
 흘승골성 ... 17, 20, 28, 35

고구려의 첫 출발부터 성장, 그리고 스러져갔던 전 역사를 살펴본다

## 고구려를 찾아서

초판 1쇄 인쇄 2009년 2월 6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2월 16일

편 동북아시아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시아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이메일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시아재단 2009

ISBN 978-89-6187-078-8 0390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시아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  
로도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